

指示의 力學的 組織에 관하여

—助詞와 尊待法을 中心으로—

朴 亨 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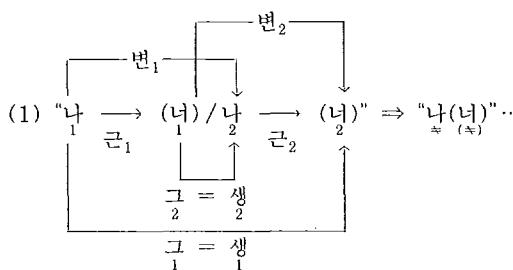
(언어학과 교수)

본 연구는 다음의 세가지 목표를 갖는다:

‘첫째로’ : 言語活動 즉 ‘말의 순환’ 을 ‘指示→被指示의 조직’ 으로 파악할 때 이 ‘物理적 사실’ 을 단순히 ‘指示 (화자:〈나〉) → 被指示 (청자:〈너〉)’ 의 ‘表面적 · 無限한 순환의 반복’ 으로서가 아니라 즉, 實物로서의 〈나〉를 중심으로 하여 〈너〉 및 〈그〉를 人爲적으로 派生시키는 ‘實物적 · 物理적 · 派生적 指示 → 被指示의 조직’ 즉 ‘實物적 · 派生적 · 非力學적 人稱의 조직’ 으로서가 아니라,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‘너(指示:〈疑問하는〉 화자) → 나(被指示:〈대답하는〉 청자)’의 深層적 · 有限한 순환의 조직’ 즉 ‘의문〈너〉 → 대답〈나〉’의 ‘自然적 순서’ 에서 ‘첫째로’ : ‘근원적 · 屈折적 (= 일반적) 〈₁너〉’ 가 그에 대응하는 ‘변형적 · 〈₂너〉적 〈나〉’를 ‘흡수’ 하는 〈너〉와 〈나〉의 ‘₁근원적 짹’ 과 그에 이어서 ‘둘째로’ : *위 ‘첫째의 짹’의 ‘₂근원적 = 변형적 짹’ 즉 ‘첫째’의 〈나〉 및 〈너〉가 각각 ‘근원’ 및 ‘변형’이 되어 위 ‘첫째’ 와 같이 그러나 그와는 逆으로 ‘근원 (= 〈₂너〉적 〈나〉) → 변형 (= 〈₂나〉적 〈너〉)’ 이라는 ‘쫙’ 이 위 ‘첫째의 짹’과 ‘쫙’을 이루고, ‘셋째로’ : *위 ‘첫째’ 와 ‘둘째’ 각각의 ‘內部적 흡수’의 ‘결과’ 가 이루는 外部적 ‘쫙’ 즉 ‘生成적 짹’ 으로 끝나는 ‘內部와 外部의 짹의 조직’ 으로서의 ‘指示 → 被指示의 조직’ 즉 ‘深層-, 精神-, 一般(屈折)-, 力學적 人稱의 조직’ 으로서 파악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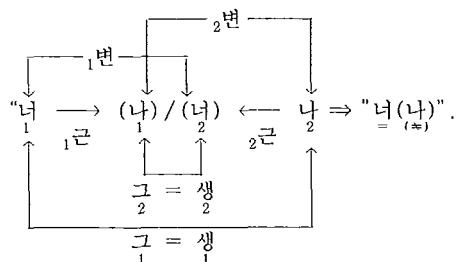
그럼으로 표시하면 (*주의 “=/≠” 표시는 “형태/의미”를, 화살(숫자)표시 “→ →/→ ←(左/右의 1, 2)”는 “非力學적 等方向/力學적 逆方向”을 각각 구별 표시함):

“非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의 조직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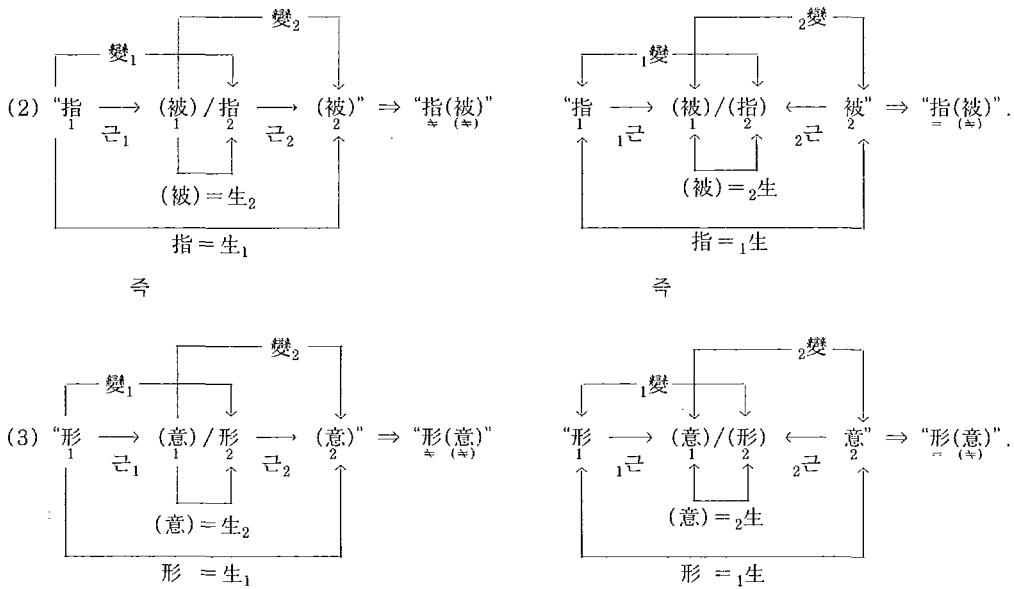


즉

“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의 조직”



즉



‘둘째로’ : *위 “첫째의 指示 = 形태 → 被指示 = 意미의 조직” 즉 非力學적 관점에서 ‘助詞’ 및 ‘尊待法’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따로 파악하는 ‘형태’ = 指示<助詞>와 ‘의미’ = 被指示<준대>를 力學적 관점의 “指示 → 被指示 의 조직”으로 환원시켜서 그 ‘조직’ 전반을 설명하는데 사용한다. 이것은 곧 非力學적 관점에서의 “實物적 人稱” 즉 ‘(格적/強調적) 主語(이, 가)/目的語(을, 를)/特殊助詞(도, 는, 만),’ 와 ‘主 = 主體(-시)/目 = 客體(-습)/動 = 相對·極尊待(-습니)’를, ‘첫째로’ : ‘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의 조직’을 ‘간접적으로 뒷받침’ <支持>하는데 ‘직절한 物理적 사실’로서 파악하고, ‘둘째로’ : 그 물리적 사실을 탈피하여 ‘力學적 조직’을 再構합을 말한다. 달리 말하면 이 ‘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의 조직’은 ‘非力學적 조직’을 ‘제거/배제’ 하는 힘을 그 자체안에 스스로 지니고 있는 ‘統一化된 (人稱의) 조직’ 대지 ‘統一化된 근원적 理論’임을 뜻한다.

‘셋째로’ : 위 “둘째”的 당연한 귀결로서 力學적/-非力學적 취급을 받는 共通基로서의 “助詞 → 尊待法”을 ‘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의 조직’으로 파악함은 두 相反되는 조직의 比較를 뜻하게 된다. 즉 외관상으로는 움직이는 듯하나 사실상으로는 안 움직이는 實物로서의 人間 = 意味 중심의 意圖 · 選擇을 態意적 · 人為적으로 설정하여 그것으로 부터 言語 = 形態를 설명하는, 다시 말해서 物質(被指示 = 意味)의 태두리 안에서 物質(= 被指示 = 意味)을 物質(= 被指示 中心의 指示 = 意味)로 分析하는 ‘非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의 조직’과, 외관상으로는 추상적 · 비 구체적이어서 안 움직이는 듯하나 사실상으로는 ‘먼저’ 순서로서의 ‘指示(= 形태)’가 選擇 · 意圖의 主體로서 ‘나중’ 순서로서의 被指示(= 의미)와 ‘짝’을 이루고 있는, 精神(= 指示 = 形태)의 태두리 안에서 物質(= 被指示 = 의미)

을 精神(= 指示 = 形태)으로 分析하는, 따라서 이때 “物質”은 精神적 성격을 띠게 되는, ‘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의 조작’을 비교하는 것, 즉 후자가 전자를 ‘제거/배제’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뜻하게 된다.

○ 力學적 “指示 → 被指示”的 짹을 간접적으로 支持하는 “적절한 언어적(= 물리적)사실”: —— 助詞와 尊待法.

*위 “둘째”에서 지적한 非力學적 관점에서의 “指示 = 形태 → 被指示 = 意미”的 조작 즉 ‘형태’로서의 “(格적/強調적) 主語(이, 가)/目的語(을, 를)/特殊助詞(도, 는, 만)”와 ‘의미’로서의 “主 = 主體(-시)/目 = 客體(-습)/動 = 相對·極尊待(-습니)尊待法”을 그 意味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:

○ 助詞 = 形태

○ 尊待法 = 意미

1 零形	모든 “動” 앞의 “目”에 “Ø”이 붙음 : “主-目-Ø-全動 ~”	1 零形	반말 = 尊待 零(Ø) : 屈折(= 終止)語尾(아/어)를 “動(形)” 에 붙임 : “主-動(形)-아/어”
	(否定적) 指定詞(아니다)에 붙음: “主-目-이-아니 ~”		(主觀적)指定詞(이다)에 붙음: “主-目-이-시 ~”
2 이/가	主觀動詞(좋/싫)의 바로 앞 요소(= “目”에 해당 하는 위치)에 붙음: “主-目-이/가 좋/싫 ~”	2 시	(記述的)存在詞(있다)에 붙음: “主-目-있-시 ~”
	主觀引用動詞(= 記述동사) (~아/어하~)의 “目” 요소에 붙음: “主-目-을/를 좋/싫 아/어하 ~”		(記述적)與格(에게) “動” 에 붙음 : “主-目(에게)-動 -습 ~”
3 을/를	行为(= 目的)動詞의 “目” 에 붙음: “主-目-을/를 먹 ~”	3 습	(行爲적) 目格(을) “動”에 붙음 : “主-目(을)-動 · 습 ~”
	모든 “동”的 “목”에 붙음: “主-目-도, 는, 만-全動 ~”		모든 “동”에 붙음: “主-目-全動-니 ~”
4 도/는/만		4 니	

이것을 다시 *앞 “첫째”의 “非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의 조작”的 그림에 따라 “형태 → 의미”的 ‘쫙’으로 배열하되 ‘형태 = 格’, ‘의미 = 強調(된 格)’와 같이 명칭을 바꾸고 앞에서 사용한 “主觀/記述/行爲”를 아울러 사용하여 정리·배열하면 아래와 같다:

○助詞 = 형태 = 格

1 零形
 (*) 다음 “이(가)”의 앞 단계로
 서의) 形 = 超형태/-격/-주관
 (*) 다음 “이(가)”의 앞 단계로
 서의) 意 = 超의미/-강조/-기술

2 이/가
 (*) “이/가”가 꼭 “目”에 붙는다는
 義務性으로서의)
 形 = 격 = 주관
 (이때 감지되는 “강조적 의미”로서의)
 意 = 강조 = 기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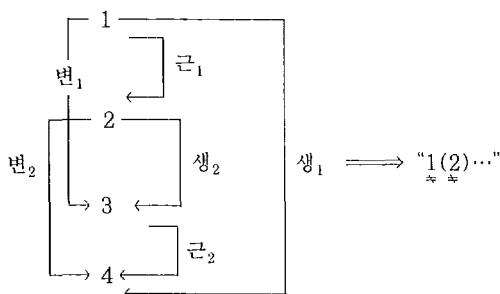
3 을/를
 (*) 다음 “을/를”의 앞 단계로서의)
 形 = *위 零(\emptyset)形과 같음
 (*) 다음 “을/를”의 앞단계로서의)
 意 = *위와 같음

4 을/를
 形 = 격 = 기술(~을 “좋/싫어
 하~”)
 意 = 강조 = 행위(~을 먹~”

5 도/는/만
 (모든 “動”的 “目”에 붙는다는
 의미에서의)
 形 = 極격 = -행위₁
 (“形”에 대응되는 “意”로서의)
 意 = 極강조 = -행위₁)

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숫자(1, 2, 3, 4)로써 위 ‘助詞’ 와 ‘존대’의 “非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의 조작”을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(*위쪽 그림을 위의 “정리”를 그대로 세로로 표기한 것이고 아래쪽 그림은 그 “표기”를 가로로 다시 고친 것이다):

○助詞 = 형태 = 格



○尊待法 = 의미 = 強調

1 零形
 (*) 다음 “시”的 앞 단계
 로서의) 形 = 左 “同
 (上 “同)
 意 = 左 “同

2 시
 形 = 左 “同
 意 = 左 “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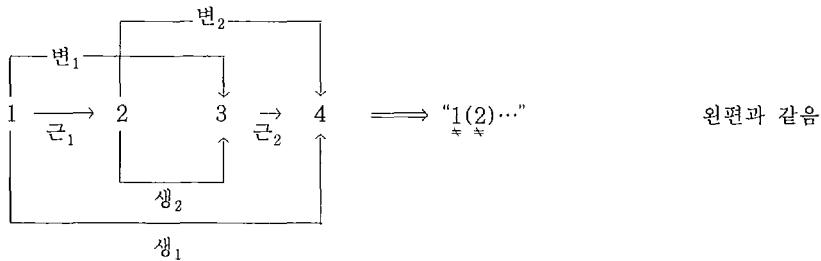
3 零形
 形 = 左 “同
 意 = 左 “同

4 습
 形 = 左 “同
 意 = 左 “同

5 니
 形 = 左 “同
 意 = 左 “同

○尊待法 = 의미 = 強調

옆으로 표기하면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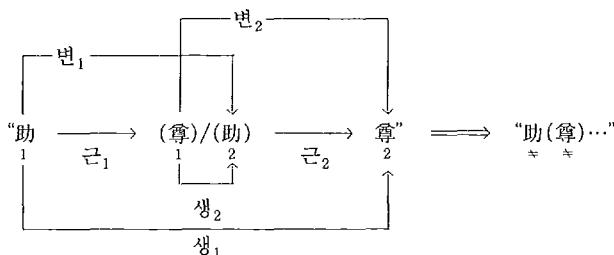


*설명: “助詞 1 = Ø 形”과 “존대 1 = Ø 形”은 각각 그와 직결된 ‘짝’ “2” 즉 “-이/-가” 및 “-시”와 ‘일차적’ 즉 ‘근원₁적’ ‘派生(잠재) → 被派生(실현)’이라는 ‘의미적 연결’을 이룬다. 이어서 “助詞 3 = 零(Ø)形”과 “존대 3 = 零(Ø)形”은 각각 그와 직결된 ‘짝’ “4” 즉 “-을/-를” 및 “-습”과 ‘이차적’ 즉 ‘근원₂적’ ‘派生(잠재) → 被派生(실현)’이라는 역시 ‘의미적 연결’을 이룬다. 즉 다시 말하면 “근원₁” 및 “근원₂”에서의 “零(Ø)形”은 결국 같은 ‘派生者’ 즉 實物적 잠재체로서, ‘일차(근원₁)적’으로는 “-이/-가”(助詞의 경우) 및 “-시”(존대의 경우)를, ‘이차(근원₂)적’으로는 각각 “-을/-를” 및 “-습”을 派生(실현)시키고 있는 셈이다. 그런데 그렇게 사실대로 보지 않고 ‘첫째로’ “형태”와 “의미”의 ‘짝’이 ‘일차’ / ‘이차’로 나뉘고, ‘둘째로’: ‘일차’의 派生者 零(Ø)形과 ‘이차’의 그것 사이에서의 ‘변형₁’적 (의미적) ‘차이’와 ‘일차’의 被派生(실현) “-이/-가” 및 “-시”와 ‘이차’의 그것 즉 “-을/-를” 및 “-습” 사이에서의 “변형₂”적 (의미적) ‘차이’를 거쳐서 ‘끌므로’: 위 ‘첫째’의 ‘근원₁/근원₂’와 ‘둘째’의 ‘변형₁/변형₂’의 ‘外部적 결과’로서 ‘구체적 實物’로서의 ‘外部적 被派生者’ 즉 ‘첫째로’: 위 “일차적 근원₁”의 ‘출발形’과 “이차적 근원₂” 즉 ‘도착形’의 ‘결합’ 즉 ‘外部₁적/實物₁적 출발形’으로서의 ‘生成₁’과 ‘둘째로’: 역시 위 “일차적 근원₁”의, 이번에는 ‘도착形’과 역시 위 “이차적 근원₂” 즉 ‘도착形’의, 이번에는 ‘출발形’과의 ‘결합’ 즉 ‘外部₂적/實物₂적 도착形’으로서의 ‘生成₂’의 ‘결합’ 즉 ‘生成₁ → 生成₂’가 생성된다고 ‘강하게 主張’하는 것을 그 특징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위의 “非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의 조작”이라고 할 수 있다. 즉 사실상으로는 같은 ‘實物 = 物質 = 意味 = 零(Ø)’ 및 ‘(도, 는, 만)과 (-니)’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역시 같은 ‘實物 = 物質 = 意味적 형태 = (-이/-가; -을/-를) 및 (-시/-습)’으로 分析하고 있으면서, 그것을 認定하지 않고 “형태 = 위에서 말한 實物/物質 = 零(Ø)形 및 (도, 는, 만)과 (-니)”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역시 “형태 = 위의 實物/物質/意味적 형태 = (-이/-가; 을/를) 및 (-시/-습)”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‘오인/착각’하고 ‘형태적 분석’이라고 ‘강하게 主張’하는 즉 다시 말해서 무한대의 분석을 애초부터 전제로 하는 物質/意味의 테두리 안에서의 物質/意味적 分析이 초래하는 ‘오인/착각’과 ‘主張’의 ‘계속적/무한적/等方向적 반복’ (*위 “非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의 조작”의 “근원₁/

근원₂”, “변형₁/변형₂”, “생성₁/생성₂”는 모두 이러한 “무한 반복”的 한 예라고 할 수 있다)이라는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. 이러한 내용을 표기한 것이 위 “非力學적 조직”的 표기: “形(意)…”이다 (“※은 ‘의미적 차이’; “…은 “무한 반복”을 표시”).

*위의 종합결론: 위와 같은 内部조직을 가진 “助詞”와 “존대”를 묶는, 즉 그들 각각의 上位에 위치하는 ‘형태로서의 助詞’와 ‘의미로서의 존대’는 이들 각각을 ‘派生’ 시키는 “理論”이라고 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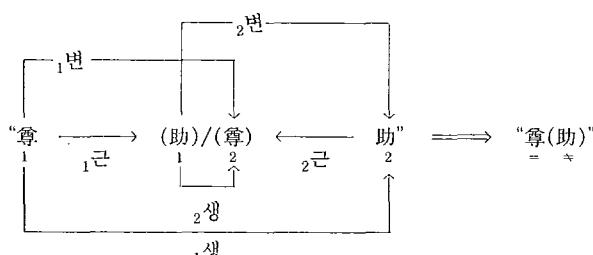
그리고 이 “理論”은 위에서 말한 뜻에서의 “오인/착각”과 “主張”的 “무한 반복”으로서의 “理論”이라고 할 수 있다. 즉 사실상 “物質 = 의미”로서의 助詞와 존대 각각의 ‘内部조직’을 ‘하나’로 묶는 ‘형태’로서의 ‘理論’이라고 ‘오인/착각’하고 그렇게 ‘주장’하고 있는 “理論”이라고 할 수 있다. 이 “理論 = 형태”로서의 “助詞 = 형태<品詞>”/“존대 = 의미<어휘>”는 역시 위와 같은 그림으로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(“助” = “品詞”; “尊” = 어휘; “생” = “文章”으로 대체할 수 있다):



이 그림이 표시하는 “理論 = 형태”로서의 “助詞 = 형태”/“尊待 = 의미”的 “非力學적/等方向적 짹”은 다음에서 그와 比較될 “力學적/逆方向적 짹”을 ‘간접적으로 뒷받침<支持>하는 (즉 ‘力學적 조직’을 ‘再構’하는데 이용될 수 있으나 곧 ‘力學적 조직’의 ‘力學적 힘’에 의하여 ‘제거/배제’될 운명을 지닌) 物質적/意味적/言語적 사실’이라고 할 수 있다.

○ “非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의 조직”과 대립되는 “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의 조직”.

“力學적 조직”은 위 “非力學적 조직”과 그 외형이 같은 그림으로 아래와 같이 표시될 수 있다: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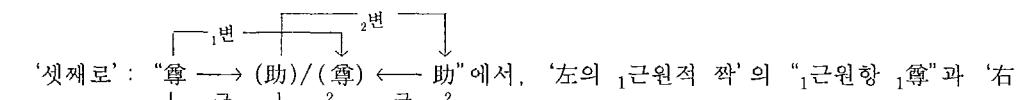
*설명: *위 “非力學적 조작”의 그림과 우선 구별되는 점은 ‘첫째로’: (非力學적) “助 → 尊”의 순서가 (力學적) “尊 → 助”的 순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. 이것은 *앞 (“본 연구의 세 가지 목표”의) “그림(1)”에서 보는 바와 같이 (非力學적) “나 → 너”的 순서가 (力學적) “너 → 나”的 순서로 바뀐 것과 같은 이치이다.

즉 ‘화자’라는 ‘實物 = 意味’를 ‘형태 = 잠재’〈나〉로, 같은 ‘實物 = 意味’로서의 ‘청자’〈너〉를 ‘형태’에서 ‘派生(실현)된’ ‘구체화된 형태’ 즉 ‘意味’로 ‘오인/착각’하고 그렇게 ‘主張’하는 것과 같이, ‘화자’ 즉 ‘人間’의 ‘意圖’라는 物理(質)적 사실로서의 尊待의 테두리 안에서 ‘恣意적/表面적/意味적’으로 짹지어진 “助詞 = 形태 → 尊待 = 의미”라는 ‘순서’도 역시 위 “나 → 너”的 ‘순서’의 밑바탕에 깔린 ‘오인/착각’과 ‘주장’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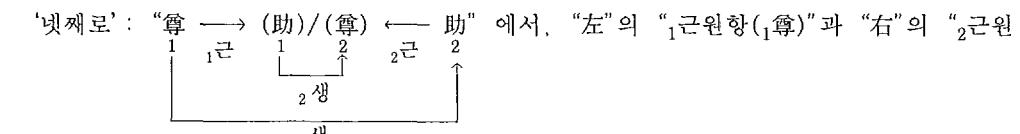
그와 반대로 “너 → 나” 즉 “의문 → 대답”的 순서에 대응되는 “尊 → 助” 즉 “屈折- = 終止語尾 → 派生- = (代)名詞적 接(後置)辭”的 순서는 자연스러운 ‘말의 순환’에서의 ‘一般 = 形태 → 特殊 = 의미’라는 근원적인 ‘먼저 → 나중’의 순서이다. 言語에 따라서는 이 ‘근원적 먼저 → 나중의 순서’를 英·佛·獨語와 같이 ‘먼저’ 순서와 ‘나중’ 순서를 각각 專擔하는 ‘형태’가 없이 같은 대명사 ‘나 I/너 you’를 이용하여 “너 you → 나 I”로 ‘짝’을 짓는 言語가 있는가 하면 韓語, 바스크어, 래틴어, 日語등과 같이 ‘먼저 = 일반’의 순서를 전달하는 ‘屈折- = 終止語尾’와 ‘나중 = 특수’의 순서를 담당하는 代名詞를 구분하여 ‘먼저 → 나중’의 ‘짝’을 짓는 語가 있다. 이것이 바로 屈折- = 終止語尾를 필두로 하여 표시되는 ‘존대’를 ‘먼저 순서’로, 派生- = 代(名)詞적 接(後置)辭로 표시되는 ‘助詞’를 ‘나중 순서’로 하여 “尊 → 助”的 ‘근원적인 짹’을 짓는 이유이다.

‘둘째로’: “ $\begin{smallmatrix} \text{尊} & \longrightarrow & (\text{助}) / (\text{尊}) \\ \downarrow_1 & & \downarrow_1 \\ \text{1 근} & & \text{2 근} \end{smallmatrix}$ ” ← 助”에서 “ $\begin{smallmatrix} \text{1 근(원)} & & \text{2 근(원)} \\ \downarrow_1 & & \downarrow_2 \end{smallmatrix}$ ”의 각각의 ‘짝’을 연결하는 화살표시의 방향과 그 짹의 내용에 대해서: 우선 左(₁근)의 짹: “ $\begin{smallmatrix} \text{尊} & \longrightarrow & (\text{助}) \\ \downarrow_1 & & \downarrow_1 \end{smallmatrix}$ ”에서 ‘₁근원형’ 즉 ‘형태’로서의 “尊”은 ‘₁변형항’ 즉 ‘₁의미’로서의 (助)를 향하여 (“→”) 그것을 ‘흡수’하는 ‘근원적 힘’ ($\overset{1}{\rightarrow}$)을 스스로 지니고 있는 ‘項’이다. 반대로 ‘괄호 ()’ 안의 “₁변형항 (₁助)”은 그 ‘흡수’에 ‘저항’하는 힘 (\leftarrow)을 역시 스스로 지니고 있으나 “₁근원 = 尊”的 흡수력 앞에 “괄호 ()”안에 머물어 그와 ‘完全合致’되어 ‘₁근원형’ 만이 있게 되는 “₁근원 = 尊”과 “₁변형 = 助”的 ‘₁근원적 짹’이다. 근원적 화살표시 (“→”) 밑의 “₁근”은 그것을 가리킨다 (이것은 ‘非力學적 조작’에서의 “實物-/의미적 짹”에서의 ‘의미의 차이’를 표시하는 靜적/等方向적 화살표시 (“→”)의 내용과 구별된다: *앞 해당 항 참조). 다음으로 右(₂근)의 짹: “ $\begin{smallmatrix} (\text{尊}) & \longleftarrow & \text{助} \\ \downarrow_2 & & \downarrow_2 \\ \text{2 근} & & \end{smallmatrix}$ ”에서는 ‘左(₁근)’의 짹과는 逆方向으로 괄호 () 안의 “₁변형적 (₁助)”이 “₂근원적 ₂助”로, “₁근원적 ₁尊”이 “₂변형적 (₂尊)”로 바뀌어 “₁근원의 짹”에서 보다 구체적인 ₂근원적 “₂助”와 “(₂尊)”의 ‘完全合致’ 즉 “₂근원형

= $_2\text{助}$ "만이 있게 되는 " $_2\text{근원} = _2\text{助}$ "와 " $_2\text{변형} = (2\text{尊})$ "의 ' $_2\text{근원적 짹}$ '이다. 이 'innie' 을 연결하는 화살표시 (" \leftarrow ")가 $1\text{근원적 화살표시} (\rightarrow)$ 와 '逆方向'으로 된 것은, ' $_2\text{근원적 짹}$ '이 ' 1근원적 짹 '과直結된 '변형적 (\leftarrow) 짹'임을 표시한다(*이것도 역시 "非力學적 조직"에서의 靜적/等方向적 화살표시 " \rightarrow "의 내용과 구별된다: *앞 해당항 참조)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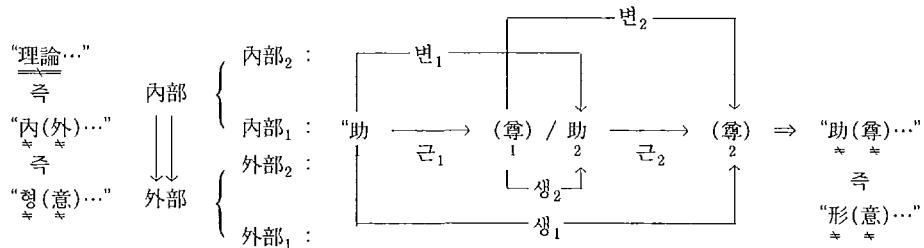
'셋째로': " $\text{尊} \longrightarrow (\text{助}) / (\text{尊}) \longleftarrow \text{助}$ "에서, '左의 1근원적 짹 '의 " $1\text{근원} (1\text{尊})$ "과 '右 2근원적 짹 '의 " $2\text{변형} (2\text{尊})$ "를 연결하는 표시 (" $\boxed{1\text{번}} \downarrow$ ")는 "左"와 "右"의 " 1근원 / (2변형) " 항의 'innie' 을, 左의 " $1\text{변형} (1\text{助})$ "과 右의 " $2\text{근원} (2\text{助})$ "를 연결하는 표시 (" $\boxed{2\text{번}} \downarrow$ ")는 "左"와 "右"의 " (1변형) / (2근원) " 항의 짹을 각각 표시한다. 이들 'innie' 의 성격은 각각 그에 先行한 ' 1内部적 짹 '으로서의 " $1\text{근원적 짹} (\xrightarrow{\boxed{1\text{번}}})$ / $2\text{근원적 짹} (\xleftarrow{\boxed{2\text{번}}})$ "에 對應하는 ' 2内部적 짹 ' 즉 " $1\text{변형적 짹} (\boxed{1\text{번}} \downarrow)$ / $2\text{변형적 짹} (\boxed{2\text{번}} \downarrow)$ "이 된다(*이것도 역시 "非力學적 조직"에서의 靜-/等方向적 연결 표시 " $\boxed{\quad} \downarrow$ "의 내용과 구별된다: *앞 해당항 참조)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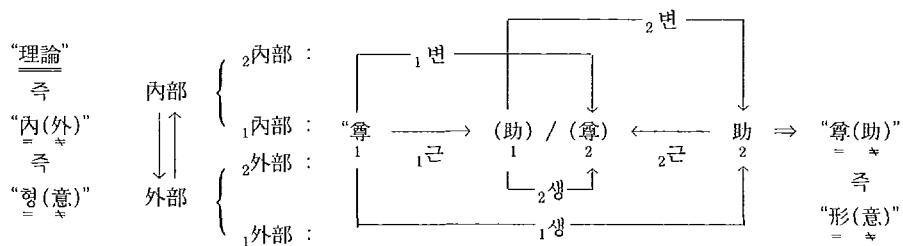
'넷째로': " $\text{尊} \longrightarrow (\text{助}) / (\text{尊}) \longleftarrow \text{助}$ "에서, "左"의 " $1\text{근원} (1\text{尊})$ "과 "右"의 " 2근원 " 항 2助 의 'innie'의 표시 (" $\boxed{1\text{생}} \uparrow$ ")와, "左"의 " $1\text{변형} (1\text{助})$ "과 "右"의 " $2\text{변형} (2\text{尊})$ "의 'innie'의 표시 (" $\boxed{2\text{생}} \uparrow$ ")는, 각각, 그에 先行한 "内部적 짹" 즉 " $1\text{内部적 짹} / 2\text{内部적 짹}$ " (*바로 위 "셋째" 설명 참조)에 대응하는 "外部적 짹" 즉 " $1\text{外部적 짹} / 2\text{外部적 짹}$ "이 된다 (*이것도 역시 "非力學적 조직"에서의 靜-/等方向적 연결 표시 " $\boxed{\quad} \uparrow$ "의 내용과 구별된다: *앞 해당항 참조).

**종합 결론: 이상에서 설명한 바를 종합하여 "力學적 尊待 → 助詞의 조직" / "非力學적 助詞 → 尊待의 조직"을 對比시켜서 그럼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:

"(비) 균원적) 非力學적 助詞 → 尊特의 조직"



"(근원적) 力學적 尊特 → 助詞의 조직"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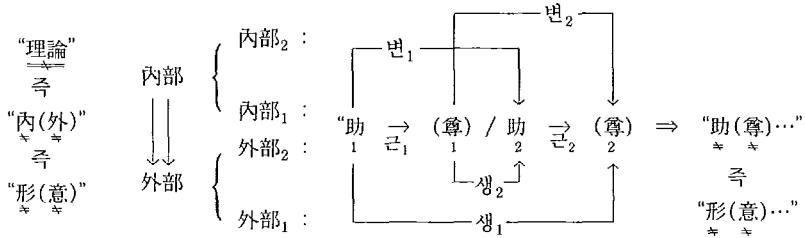
*설명: 기본적으로 “非力學적 指示<형태> → 被指示<의미>의 조직”은 “力學적 조직”的 그것과 대립된다. “力學적 조직”에 있어서는 “指示<형태>”가 아닌 “被指示<의미>”를 흡수하는 힘(→) 즉 “等質化시키는 힘(=)”과 “被指示<의미>”가 아닌 “指示<형태>에/를 저항하는/異質化시키는 힘(←/=)”의 ‘有限한 짹’ 즉 無限한 分析을 전제로 하는 物理-/ 實物-/ 意味적 테두리를 탈피한 ‘精神-/ 力學적 짹’ 즉 “指(被)”임에 반하여, “非力學적 조직”에 있어서는 다 같이 ‘物質/ 意味/ 實物’로서의 “指示”와 “被指示”의 表面-/ 可視적 “의미의 차이(≠)”에 역점을 둔 “指示 = 형태<잠재>”/“被指示 = 의미<구체·실현>”이라는 ‘오인/착각’과 ‘주장’의 ‘무한 반복(…)'의 짹’ 즉 “指(被)”이다.

위 그림의 左/右의 “非力學적 조직”/“力學적 조직”的 左端에 위치한 “内部 → 外部”/ “内部 ← 外部”는 각각 “形(意)…”/“形(意)”로서의 “理論”에 해당한다. “→” 표시는 위에서 말한 “無限 반복(…)"의 基点 즉 “物質-/ 意味적 짹: 形(意)…”를 표시한다(오른 쪽 외곽의 “助(尊)…”도 같은 내용을 표시한다). 그와 반대로 “←” 표시는 “精神-/ 力學적 균원으로서의 “有限한 짹 形(意)”를 표시한다(오른 쪽 외곽의 “尊(助)”도 같은 내용임). 左에서 두번째의 “内部”와 “外部”的 “짤”은 ‘첫째의 균원적 理論’에 대한 ‘둘째의 변형적 理論’에 각각 해당한다. 그 ‘순서’는 “非力學적 조직”的 경우에는 “1 → 2/1 → 2”와 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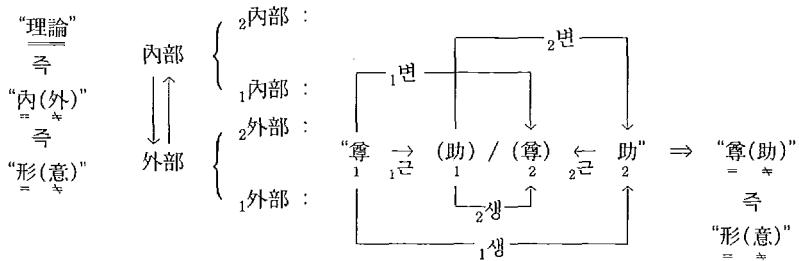
이 ‘等方向적’으로, “力學적 조작”的 경우에는 “ $1 \rightarrow 2/1 \leftarrow 2$ ”와 같이 ‘逆方向적’으로 읽는다. 그 각각의 “순서”에 대응되는 맨 안 쪽 그림의 “근원/변형/생성”은 각각 “첫째의 근원적 理論”과 “둘째의 변형적 理論”에 이은 결과 즉 “생성” 단계에 해당한다. 이것은 곧 “力學적 조작”에 있어서는 ‘첫째로’: 이 “그림”을 위와같은 순서로 읽은 “内部/外部”的 각각의 ‘짝’에 모두 對應되게 그려 놓되, 단 그 ‘짝’의 ‘첫째의 순서항’ 즉 ‘근원항’은 그 그림의 “ ${}_1\text{변}/{}_2\text{변}$ ” 및 “ ${}_1\text{생}/{}_2\text{생}$ ”를 모두 위의 그림의 화살표시 방향과 같이 ‘근원 (\rightarrow)’의 화살표시($\boxed{\quad} \downarrow / \boxed{\quad} \uparrow$)로, 그 “짝”的 ‘둘째의 순서항’ 즉 ‘변형항’은 ‘변형(\leftarrow)’의 화살표시($\boxed{\quad} \uparrow / \boxed{\quad} \downarrow$)로, ‘구별 표시하여 그려 놓을 수 있음’을 뜻하고, ‘둘째로’: 그 그림의 “ ${}_1\text{변}/{}_2\text{변}$ ” 부분에다 그 “변형의 성격”을 구별 표시해야 함을 뜻한다. 그리고 이것은 “근원적-(左端의 “理論”)/변형적 理論(左에서 둘째의 “理論”)단계에도 모두 해당됨을 뜻한다. 즉 “근원적 理論”: “ $\emptyset/(\emptyset)$; “변형적 理論”: “ ${}_1\emptyset/{}_2\emptyset$; $(_2\emptyset)/(_1\emptyset)$ ”(*非力學적 조작”에서는: $(\emptyset_1)/(\emptyset_2)$ 로 표시): “생성 단계”: 옆과 같음. 그러나 “非力學적 조작”에 있어서는 이러한 ‘표시’는 오직 ‘物理-/意味적 테두리’ 안에서의 ‘차이(≠)’만을 표시할 뿐 이므로 ‘화살 표시(\rightarrow)’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고, 따라서 “力學적 조작”에서와 같은 ‘근원적 설명’은 불가능하다(*앞 “助詞/尊待法”的 그림 설명 참조). 그리고 ‘셋째로’: (力學적/非力學적) “内部項의 짝”은 ‘内部적으로 직결된 項’이므로 그림상 “ ${}_1\text{변} \cdot \text{변}_1 / {}_2\text{변} \cdot \text{변}_2$ ”의 화살표시의 바뀜에 관계없이 “ ${}_1\text{생} \cdot \text{생}_1 / {}_2\text{생} \cdot \text{생}_2$ ”의 순서는 그대로임에 반하여, “外部項의 짝”은 그 ‘外部性’ 때문에 그 “생”的 ‘먼저/나중’ 순서가 바뀐다. 그러나 그 ‘바뀜’은 “非力學적 조작”에 있어서는 ‘표시의 바뀜’의 경우에서와 같이 아무런 뜻을 갖지 않는다. 위의 ‘근원적 짝’으로서의 “근원적 理論” = (力學적) “形(意)/(非力學적) “意(形)…” 단계에 이어 ‘변형적 짝’으로서의 “변형적 理論” 단계는 위 “근원적 理論 단계”에서와는 다른 더 구체적 “변형의 성격”을 표시한다. 즉 “근원적 理論”: “ $1^\circ(1^\circ)$; “변형적 理論”: “ $1/(1); 2/(2)$ ”: “생성 단계” = 옆과 같음. 그리고 위 “근원적 이론단계”와 다른 점은 그 “변형적 성격” 때문에 “内部적 짝”的 “생성”的 순서가 바뀌어 안 쪽 ($\boxed{\quad} \uparrow$)이 ‘먼저’ 밖($\boxed{\quad} \downarrow$)이 ‘나중’이 되고 (따라서 이 단계의 표기: “助(= 의미)” → “尊(= 형태)”는 “근원 단계”的 “尊 → 助”와 ‘直結’ 된 ‘짝’이라는 점에서 ‘尊적 助’ 즉 ‘主觀/형태적 助’와 ‘記述 의미적 尊’의 내용을 가진 ‘조직’이라고 할 수 있다). 그리고 그와 반대로 “外部적 짝”은 그 ‘外部성’ 때문에 ‘밖’이 ‘먼저’ ‘안’이 “나중”이 된다 (따라서 이 단계의 표기: “尊(= 형태)” → “助(= 의미)”에서 “尊” = “형태”는 “助” = “의미”적 성격을, “助” = “의미”는 더 구체적 성격을 띠게 되며, 이러한 내용에 力點을 둘 때는 “助” (= 의미) = “먼저” → “尊” (= 형태) = “나중”적 “조직”이라고 할 수 있다). “非力學적 조작”的 경우는 *앞의 “意味적 순서에 의한 助詞 → 尊待의 조작”에 해당되며, 그것과 바로 *위의 “형태 위주의 조작”이 결국 같은 것임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.

이것을 앞 단계와 對比하기 위하여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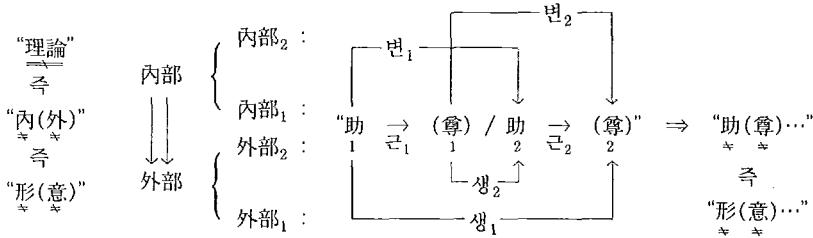
“(변형적)非力學적 助詞 → 尊特의 조작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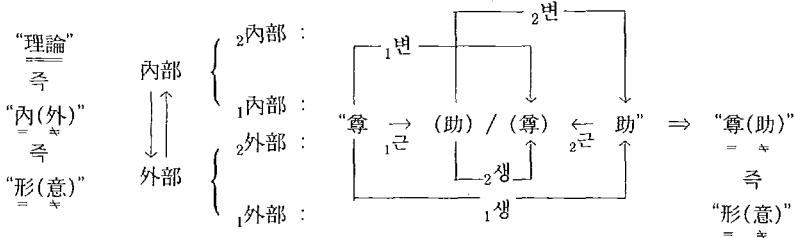
“(변형적)力學적 尊待 → 助詞의 조작”



“(생성적)非力學적 助詞 → 尊待의 조작”



“(생성적)力學적 尊待 → 助詞의 조작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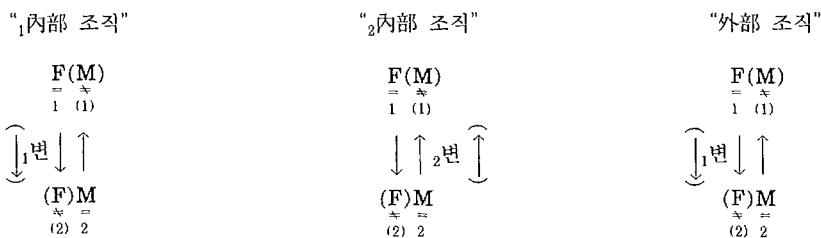
요컨대 “非力學적 조작”이란 결국 사실상의 “物質 = 意味”的 意義적 分析으로서의 “근원적 理論 단계” = “文章(論)” ; “변형적 理論 단계” = “品詞(論)” ; “생성 단계” = “語

彙(論)"이다. 그리고 이와 같은 '物質/意味적 分析'을 다시 둘로 역시 "物質/意味적"으로 분석하여 하나를 "근원적 理論" = "形態論", 다른 하나를 "변형적 理論" = "統辭(意味)論"이라고 '오인/착각'하고 또 그렇게 '주장'하는 "非力學적 조작"이다 (*앞 "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의 짝을 간접적으로 支持하는 적절한 언어적<물리적> 사실" 項의 "설명" 참조). 여기서 "力學적 조작"과의 '比較'는 끝난다. "力學적 조작"은 이 "物質 = 意味" 단계를 '脫皮'하여 '첫째로': "근원적 理論 단계" = "근원적 ₁理論 및 ₂理論 = 一般(人稱)音韻論" → "변형적 理論 단계" = "一般形態論(1)/(2)" → "생성 단계" = "內部 統辭論(1)/(2)" 와, '둘째로': "변형적 理論 단계" = "外部 統辭論(1)/(2)"의 "짝"으로 이루어진 "力學적 조작"이다.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"尊待"와 "助詞"의 "指示 → 被指示의 짝" 즉 "力學적 조작"은 "非力學적 조작"의 "物理/意味적 位置"가 아닌 위 "첫째"와 "둘째"의 "짝"으로 이루어진 '조작의 각 단계의 位置'에 자리잡게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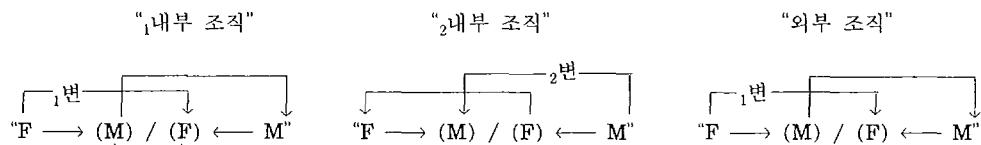
○ "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의 조작에서의 尊待와 助詞의 位置.

1) 理論 단계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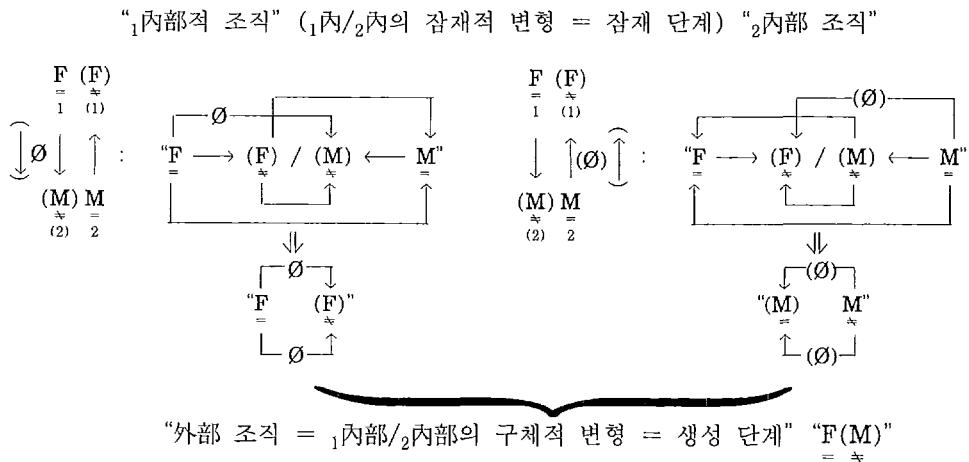
이 단계는 "형태 F = 尊"과 "意味 M = 助"의 "₁内部 즉 ₁근적 짝"만이 있는 "근원 단계"이다. 앞으로의 설명의 편의상 "₁근적 짝"을 "F(M)"과 같이 "上"에 놓고 "₂근적 짝"을 "(F)M"과 같이 "下"에 놓고 그 둘을 逆方向의 화살표시(↓↑)로 연결하고, "₁변"은 그 화살표시의 "左"에 下降(↓)의 화살표시와 그 "₁변의 성격"과 함께 표시하고, "₂변"은 그 "右"에 上升(↑)의 화살표시와 그 "₂변의 성격"과 함께 표시하여 "형태 F"와 "의미 M"의 "짝" 즉 "力學적 조작"을 파악한다. 즉: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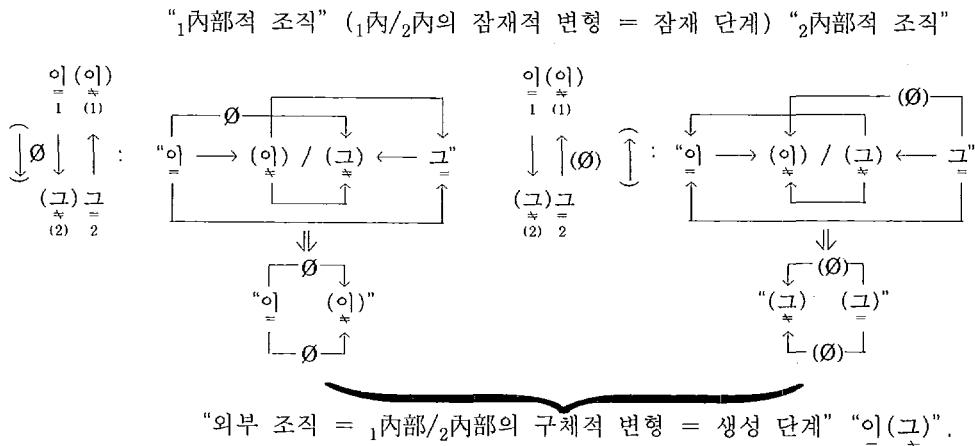
이어서 위에서 이미 사용한 '(橫적 對角線) 그림'을 "₁변"의 경우는 그 '특성'의 표시와 '근원적(→)' "변" 및 "생"의 화살 방향표시로, "₂변"의 경우는 그 '특성'의 표시와 '변형적(←)' "변" 및 "생"의 화살 방향 표시로 구분하여, 그에 각각 대응시킨다. 즉:



위 그림을 사용하여 “理論 단계”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: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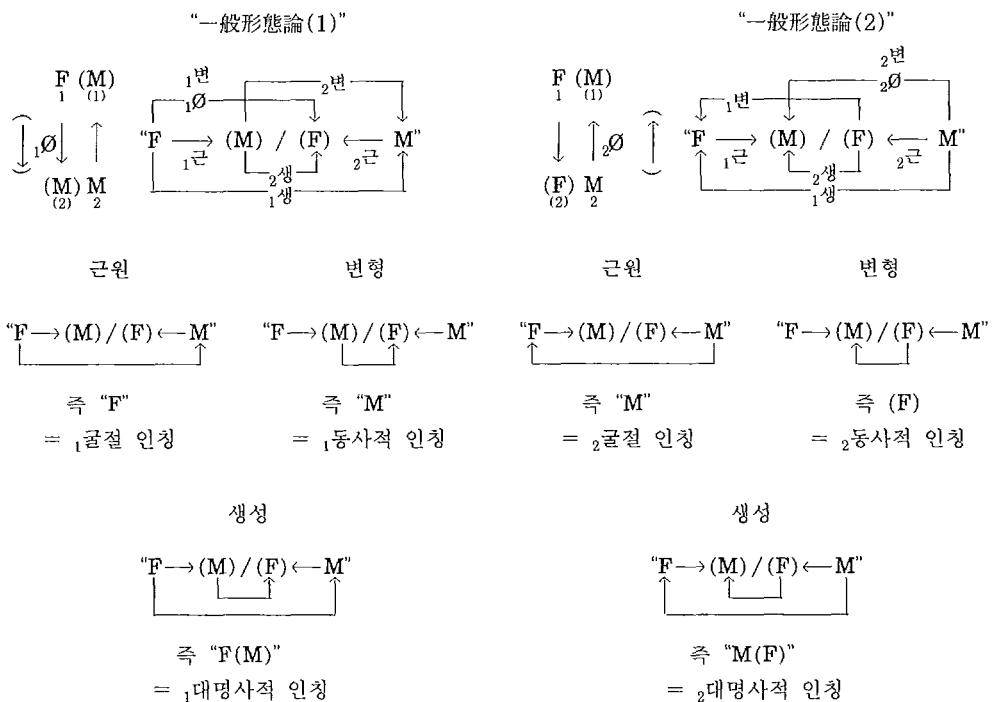
즉 앞에서 “内部-/外部 조직”的 파악에 사용한 “F(M)/(F)M의 짹”에서 “변”을 “Ø”/“(Ø)”로 놓은 결과와 같다. 그런데 그 “짤”을 “F(F)/(M)M”으로 표시한것은 가장 ‘근원’이 되는 단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. 이 단계는 “指示”로서의 “理論”과 “被指示”로서의 “言語”가 “完全合致”된, “屈折적 녀<₁의문 指示>/(나)<₂의문 = 대답적 指示>” 또는 “屈折적 “이” <₁近稱적 指示>/ “그”<₂近稱 = 中稱적 指示>”만이 있는 “一般(人稱 또는 指示) 音韻論” 단계라고 할 수 있다. 구체적인 예를 그림에 배치하면 :



*결론: 따라서 “尊待 = 形態”/ “助詞 = 意味”的 “이론 단계”는 超言語적으로 “ø(그)”라고 표기될 수 있다.

2) 一般形態論(1)/(2) 단계:

“一般形態論(1)/(2)” 단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(“₁内部” = “근원” / “₂内部” = “변형” / “外部” = “생성”으로 표기함. “=” 표시는 생략함):



이 “一般形態論(1)/(2)” 단계는 “潛在文(1)/(2)” 단계에 해당한다. 즉 그와 ‘짝’을 이루는 “内部統辭論(1)/(2)” 단계에 대하여 “잠재 단계”라고 할 수 있다.

위 그림에서 “一般形態論(1)”의 “근원 F”는 “₁屈折·終止語尾적 指示(人稱)”을, “변형 (M)”은 “₁動詞적 指示(人稱)”을, 그리고 “생성 F(M)”은 “₁代名詞적 指示(人稱)”을 표시 한다. 이어서 “一般形態論(2)”의 “근원 M = 동사 M적 屈折 F人稱 = (代名詞적)屈折 인칭”은 위 (1)과는 逆方向으로 “₂屈折적 指示(人稱)”을, “변형 F = 屈折적 동사 M人稱 = 동사 인칭”은 “₂動詞적 指示(人稱)”을, 그리고 “생성 M(F) = 위의 결합 = 屈折적 대명사 인칭”은 “₂代名詞적 指示(人稱)”을 표시한다. 그리고 이 “屈折 ← 動詞 ← 代名詞”人稱의 각각은 다시 ‘이차적’ 즉 (변형적) “屈 ← 動 ← 代”로, 이 각각이 다시 ‘삼차적’ 즉 (생성적) “屈 ← 動 ← 代”로 나뉜다. 순서대로 설명하면: ‘첫째로’: “일차적 근원 단계”: 左: “F → (M)/(F) ← M” // 右: “F → (M)/(F) ← M”에서, “左”的 “₁근”: “F → (M)”의 “F”와 “M” / “右”的 “₂근”: “(F) ← M”의 “M”과 “F”는 각각 ‘(内部적)

짝'으로서의 "근원"과 "변형"에 해당되고, "左"의 ${}_2\text{근}$: "(F)" \leftarrow "M"의 "(F)"와 "M"/"右"의 ${}_1\text{근}$: "F" \rightarrow "(M)"의 "F"와 "(M)"은 각각 *위 "(内部적) 짹: 근원/변형의" '(外部적) 짹'으로서 " ${}_1\text{생성}$ " 및 " ${}_2\text{생성}$ ", 즉 "생성"이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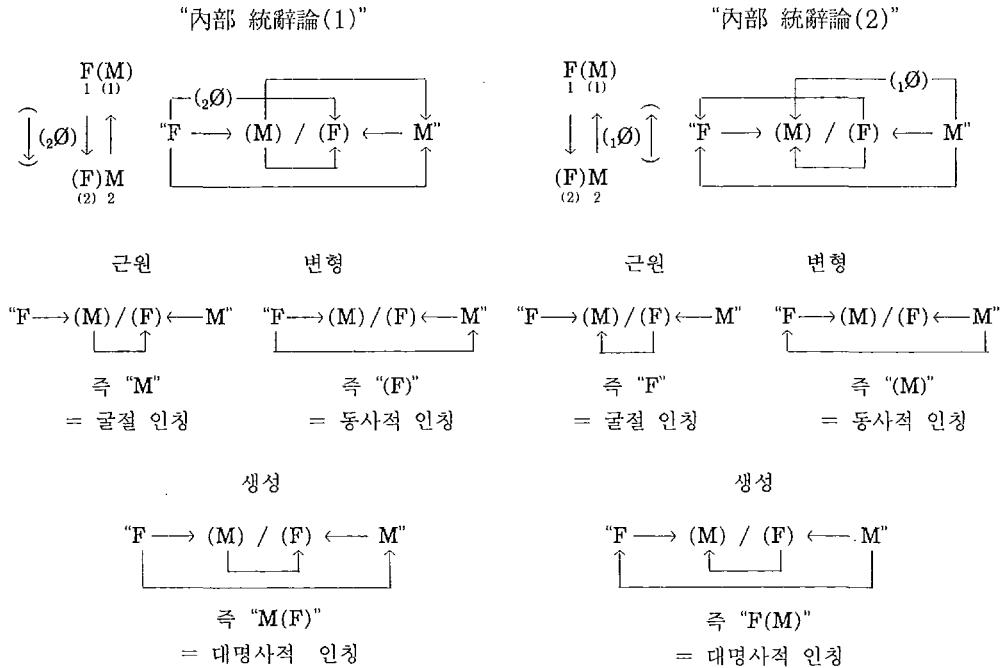
'둘째로': "이차적 변형 단계": 같은 "左/右 두 그림"에서 "左의 ${}_1\text{변 } {}_1\emptyset$ ($\boxed{\quad}^1\emptyset \downarrow$)과 ${}_2\text{변}(\boxed{\quad} \downarrow)$ "/"右의 ${}_2\text{변 } {}_2\emptyset$ ($\downarrow^2\emptyset \boxed{\quad}$)와 ${}_1\text{변}(\downarrow \boxed{\quad})$ "에 의해서 "첫째의 근원 단계"의 "근원/변형/생성"의 '변형'으로서의 "(内部적) 짹: 근원/변형"과 그 "(外部적) 짹: 생성"이 이룩되어 "첫째의 근원 단계"와 '内部적 짹'을 이룬다; '셋째로': "삼차적 생성 단계": 같은 "左/右 두 그림"에서 "左의 ${}_1\text{생적} \text{변형}(\boxed{\quad}\uparrow)$ 과 ${}_2\text{생적} \text{변형}(\boxed{\quad}\uparrow)$ "/"右의 ${}_2\text{생적} \text{변형}(\uparrow \boxed{\quad})$ 과 ${}_1\text{생적} \text{변형}(\uparrow \boxed{\quad})$ "에 의해서 위 "첫째의 근원 단계"와 "둘째의 변형 단계"의 "内部적 짹"의 "外部적 짹"으로서의 '左: ${}_1\text{생성적} \text{근원/변형}$ '과 ' ${}_2\text{생성적} \text{근원/변형} \text{즉} \text{생성}$ '의 '짝' 및 '右: ${}_2\text{생적} \text{근원/변형}$ '과 ' ${}_1\text{생적} \text{근원/변형}$ '의 '짝'이 각각 이루어 진다.

그러므로 "尊 = F" / "助 = M"으로 "一般形態論(1)/(2)"와 그 각각의 단계를 표기하면 그것이 곧 '非可視적'인 "尊待"와 "助詞"의 위치라고 말할 수 있다. 여기서는 '一般形態論의 조직'을 일일히 설명할 자리가 아니므로 필자가 작성한 "現代韓國語의 一般形態論의 同形의 조직"에 미루기로 한다.¹⁾ 한 예를 들어 "一般形態論(1)"의 "動詞人稱" 단계 안의 "動詞人稱" 단계 ("-아, -개, 지, -고<도, 는, 만>" 및 "-기<도, 는, 만>" 등으로 이루어지는 助動詞에 助詞가 붙을 경우)는 "助詞 = M적 尊待 = F 즉 動詞人稱"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, "代名詞人稱" 단계의 屈折人稱 단계(<指示적> "이, 그, 저"로 시작되는 "이, 가, 을, 를" 助詞단계)는 "屈折·尊待 = F적 즉 指示적 助詞" 단계, "動詞人稱" 단계(記述동사 "있-" / 主觀동사 "이-"의 '짝'으로 시작되는 단계)는 "助詞 = M적 尊待 = F 즉 동사 人稱" 단계, 끝으로 "代名詞적 人稱" 단계("나/너, 그"로 시작되는 단계)는 "(구체적)尊待 = F적 助詞 = M 즉 代名詞 人稱" 단계라고 부르고 또 그렇게 파악할 수 있다 (*一般形態論(2)는 (1)과 逆方向이다. *바로 위의 "(1)/(2)" 단계의 설명 참조: 또 *뒤의 "一般形態論(1)/(2)의 同形의 조직" 참조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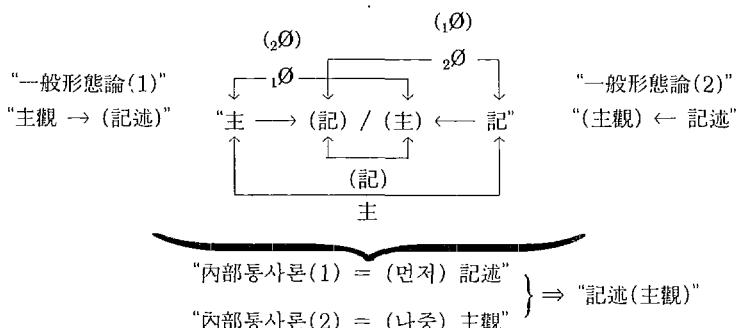
3) 内部統辭論(1)/(2) 단계:

이 단계는 다음과 같이 표기될 수 있다:

1) 近刊: 朴亨達 '理論言語學의 比較에 관하여: 서울大學校 出版部' 중 "形態와 意味의 同形의 (非恣意的) 分析理論과 그 適用/記號의 非恣意性과 文法體系" 참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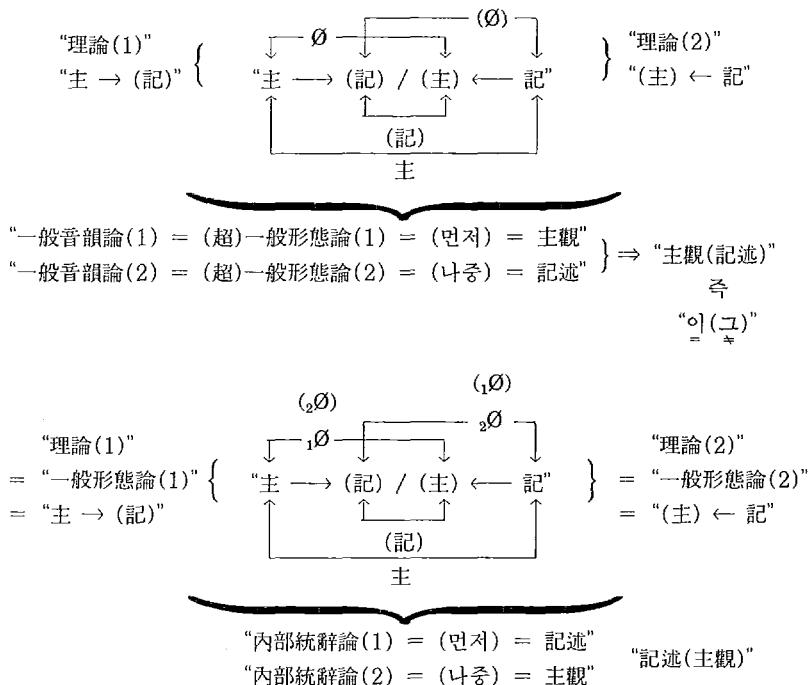


위 “内部통사론(1)/(2)”의 ‘짝’은, 마치 “一般音韻論(1)/(2)”의 ‘짝’이 “理論(1)/(2)”의 짝의 (직접적) ‘生成적 짝’인 것과 마찬가지로, “一般形態論(1)/(2)”의 짝의 ‘생성적 짝’이다. 이것을 “ $F = 形態 = 主觀 = (1)$ ”/“ $M = 意味 = 記述 = (2)$ ”로 각각 超言語적으로 구분 표기하고, “변형” 및 “생성”的 화살표시(\rightarrow/\leftarrow)는 (\leftrightarrow)와 같이 하나의 線上에, 그리고 “변형의 성격”은 “밀 = 内部” = “먼저”/“위 = 外部 = 나중”으로 표기하여 하나의 그림으로 표시하면 :



“생성 단계”的 “안쪽($\uparrow\downarrow$) = 記述”이 ‘먼저’, “밖($\uparrow\uparrow$) = 主觀”이 ‘나중’으로 그 ‘순서’가 “一般形態論(1)/(2)” 단계의 순서의 逆으로 바뀌었다. 이것은 *앞의 “理論(1)/(2)” 단계의 “(직접적) 생성적 짝”으로서의 “主觀(記述)” = “이(그)” = “一般음운론(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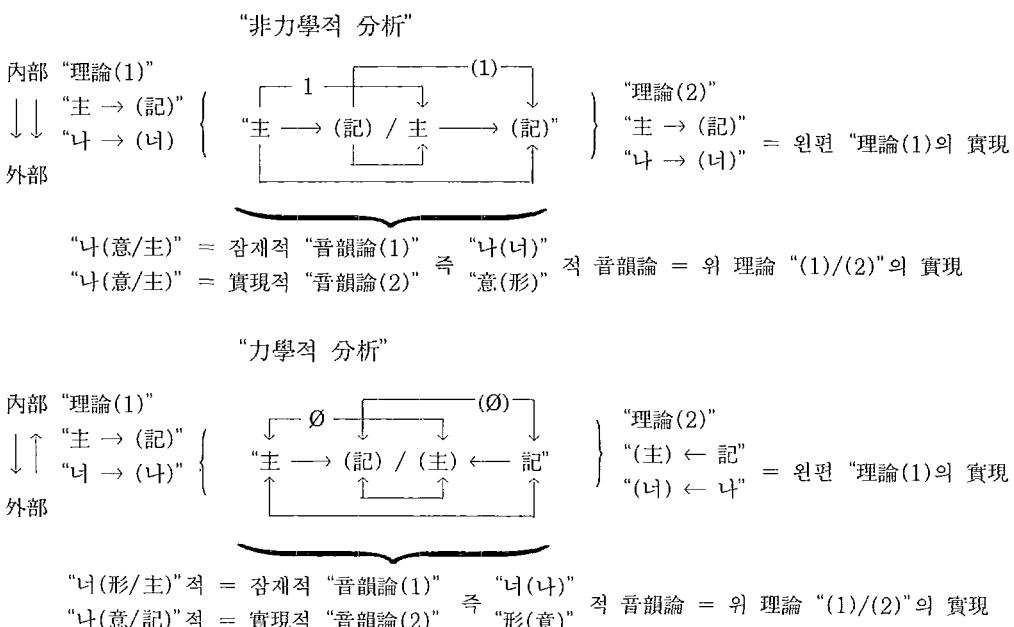
/(2) = “(超)一般形態論(1)/(2)” 단계에 대하여, “內部統辭論(1)/(2)” 단계는 그것의 “(간접적) 생성 단계”임을 말한다 (*그 설명은 그림에 있음). 이것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면 :



o) “内部統辭論(1)/(2)”를 다시 “助詞(= 意味 = 記述) / “尊待(= 形態 = 主觀)”로 표기하면 “助(尊)”과 같이 표기될 수 있다. 이것은 “潛在文”으로서의 “一般形態論(1)/(2)” “尊(助)” 즉 “形(意)”와 ‘直結된 짹’으로서의 “助(尊)” 즉 “意(形)”이다. 즉 “潛在적 潛在文”에 대한 “潛在적 구체문” 즉 “말이 되는 文”이다. 바꿔 말하면 “말이 아직 안된 상태”로서의 “一般形態論(1)/(2)”와 구별되는 “말이 된다는 구체적 특징”을 지닌 尊待(= 主觀 = 形態 F)적 “助詞(= 記述 = 意味 M) 즉 (F)M = (尊)助” 즉 “말이 되는 潜在적 尊待(= 形態 = 主觀文)”라고 할 수 있다. 이것을 *앞의 “非力學적 助詞(= 指示) → 尊待(= 被指示)의 조작”에서 그 조작을 지배하는 “理論”으로서의 “意味적 순서：主觀 → 記述 → 行위”와 비교할 때, 이 “力學적 조작” 즉 “内部統辭論(1)/(2)”는 “非力學적 조작의 理論의 순서” 즉 ‘구체적 行위 중심’의 순서를 ‘脫皮’ 내지 ‘제거/배제’ 한, “말이 되는 潜在적 主觀文”이라고 할 수 있다. 그 “主觀文”은 또한 “非力學적 조작”에서의 “助詞” / “尊待”的 “意味 = 動詞 = 零(Ø)형(= Ø 助詞/Ø尊待) 및 全動詞(特殊 助詞/極尊待)” 중심의 “主(主觀) → 目(記述) → 動(행위)”의 ‘순서’에 따르는 “非力學적 分析：‘主語₂(-이/-가)/主體 尊待₂(-시)；目的語(-을/를)/目的語 · 客體 존대(-습)；全動詞적 目的語”

(-도 · 는 · 만)/極 · 全動詞격 尊待(-니)"가 아니라, 그러한 분석을 '脫皮' 내지 '제거/배제' 한 분석 즉 "非力學적 의미상의 순서": "主觀 → 記述 → 行為" 중 "主觀"에 해당하는: "(主觀격)" "좋/싫", "-이(다)" 및 "(記述격)" "있(다)"와 "(主觀격)" "-이/-가" 및 "(記述격)" "-시"의 '짝': "主-目(= 主₂)-이/가 좋/싫~" 및 "主-目(= 主₂)-이/-시~"를 '否認' 하는 "力學적 分析": "屈折인칭(-어/아" + "-이/-가" 및 "-시") → 動詞격 人稱("-이/-가" + "좋·싫" 및 "-이" + "시") → 代名詞격 인칭("1代명사 + 2代名詞" + "-이/-가" 및 "-시)") 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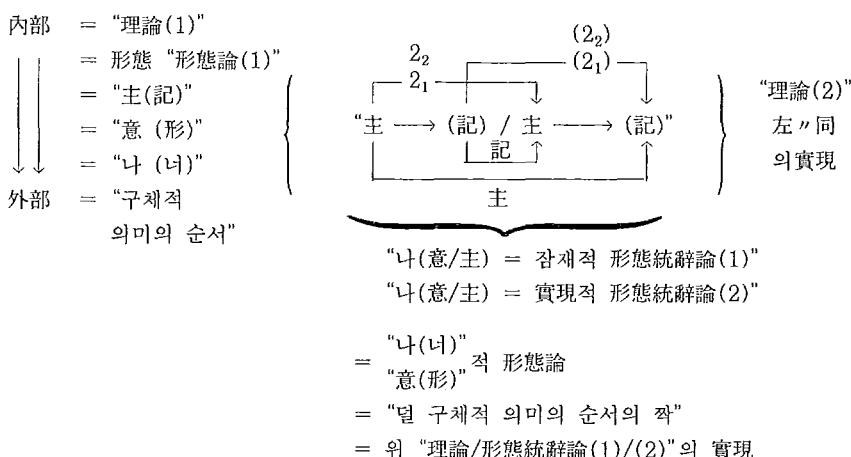
** 종합 결론: 이 "非力學적 分析"과 "力學적 分析"을, "內部 統辭論"²⁾에서 설명한 '基本原理' ²⁾를 또 다시 되풀이한 바로 *위의 "理論 → 一般 音韻論 → 一般 形態論 → 内部 統辭論"의 "力學적 조작"에 이어, 이들을 다시 종합하고 끝으로 "外部 統辭論" ("非力學적"에서는 "意味 統辭論" <*아래 참조>)에 이르기 까지의 "非力學적 分析"과 "力學적 分析"을 그림으로 对比시켜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("主觀" / "記述"은 "非力學"에서는 "나 (= 의미)" / "너 (= 형태)" ; "力學"에서는 "너(= 형태)" / "나(= 의미)"에 각각 해당한다; "그림"은 "근원/변형/생성"을 '하나'의 그림으로 나타낸다):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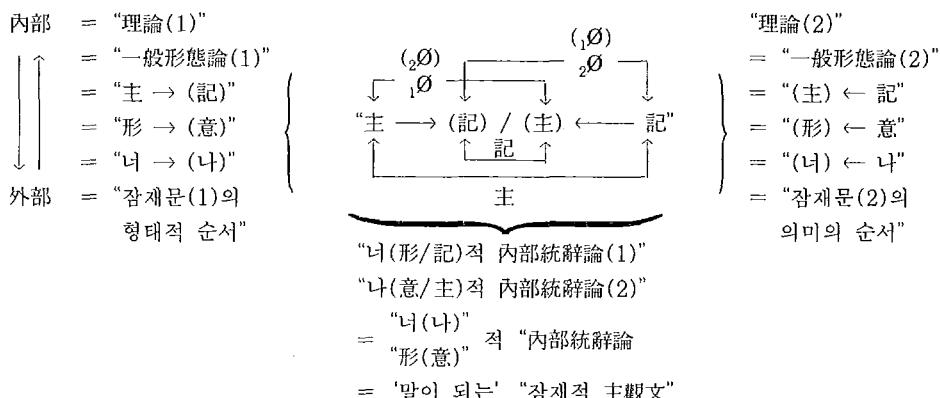
2) '非力學적 조작'에서는 "形態 統辭論" <*아래 참조>; "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"의 짝을 간접적으로 支持하는 "적절한 언어적(<= 물리적> 사실": "助詞와 尊待法"의 "非力學적 조작"의 "그림" 및 "설명"項 / "非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"의 조작과 대립되는 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"의 조작"의 "종합 결론"項의 "理論" 단계 이하의 "그림"과 그 "설명"項 및 "非力學적/力學적-(근원-/변형-/생성적) 助詞 → 尊待/尊待 → 助詞의 조작"의 "그림" 참조.

*설명: “力學적 分析”에서의 “너(나)적 一般(人稱)音韻論”은 바로 그에 先行하는 ‘力學적/형태적 指示<형태: 너> → 被指示 <의미: 나> 의 조작’으로서의 단계와 直結된 “생성”으로서, 그에 後行하는 “一般形態論”에 대하여 “理論의 位置”에 선다. 즉 ‘근원적 人稱적 指示 → 被指示 = “너(나)”/“이(그)”의 精神-/力學적 조작’이다. 이에 대하여 “非力學적 分析”에서의 “나(너)적 音韻論”은 “物理-/實物-/의미적/“나”적 理論” 단계 즉 ‘가장 구체적 統辭·意味論단계’의 테두리 안에서의 ‘첫째의 의미상의 순서’의 “위치”에 서서 다음의 그 보다 의미가 구체적인 “形態論” 단계에 앞서는 ‘非力學적/의미적/非人稱적 指示 <의미: 나> → 被指示 <형태: 너>의 조작’이다.

“非力學적 分析”



“力學적 分析”



*설명: “非力學적 分析”에서의 “形態統辭論”은 역시 “理論”으로서의 “統辭·意味論”的 테두리 안에서의 ‘둘째의’ 의미상의 순서의 위치에 서서 그 앞 단계의 “音韻論”과 함께 ‘의미적인 짹’을 이룬다. “助詞(-이/-가~~-을/-를)/尊待(-시/-습)”를 예로 들 때 앞 “音韻論” 단계가 ‘의미의 총체’로서의 ‘動詞’의 ‘零(\emptyset)形’ 즉 “ \emptyset 形 助詞”/“ \emptyset 形 尊待(=반말)”라면, 이 “形態統辭論” 단계는 “主一目一動”的 ‘기본 틀’에서 ‘첫째로: (否定적)指定詞 “아니다”/主觀動詞 “좋-·싫-”의 앞과 指定詞 “이다”/存在詞 “있다”의 앞의 “目”에 해당하는 위치에서의 “이-가” 및 “-시”, 그리고 그 보다 ‘의미’가 더 ‘구체적’인 “主觀引用動詞” 즉 “記述動詞” “좋-/싫어하”와 “행위 동사” “먹-”, 그리고 ‘둘째로’: ‘與格’ “에게” 및 ‘目格’ “을/를” 動詞의 “目”에 붙는 “-을/-를” 및 “-습”이라고 할 수 있다. 즉 이들 각각은 앞의 “ \emptyset 形”과 각각 “ \emptyset 形—有形”이라는 ‘의미적인 짹’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. 이들 각각의 “짜”的 “기본 틀”로서의 “主一目一動”은, “行爲者一行爲”라는 ‘의미적인 짹’의 ‘계속 반복’을 나타낸 것이다. 즉 “主一動”을 ‘일차적 행위자—행위’라면 ‘目一動’은 ‘이차적 행위자—행위’이다. 따라서 소위 ‘二重主語文’이라고 말하는 “主一目-이/-가 좋/싫(아니다/되다/있다/크·작다)文”은 이러한 ‘행위자—행위’라는 ‘等方向적/반복적 의미적 짹 觀’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.

따라서 이러한 관점으로는 아무리 설명을 새로이 시도해도 결국은 ‘순환론’이 되어 버려서 설명이 ‘完了’ 되지 않는다(主語·主體 존대 “-시”/目語·客體 존대 “-습”에도 이러한 ‘순환론’이 되풀이 될 수 있다).

이와 반대로 ‘力學적 分析’에서의 “(内部統辭論(1)/(2)에 대하여 “理論”으로서의)一般形態論(1)/(2)”는 그것의 “생성”단계인 “内部統辭論(1)/(2)”와 “力學-/형태적 짹”을 이루고, 이 “짜”은 그 앞 단계로서의 “理論(1)/(2)”와 그 “생성”으로서의 “一般(人稱)音韻論”이 이루는 “짜”과 ${}_1$ 内部적인 = 直結된 = 근원적 짹’을 이루고, 이 “짜”的 “생성”으로서의 “外部統辭論(1)/(2)”에 대하여는 ‘ ${}_2$ 内部 = 변형’적인 “짜”를 이룬다. 즉 이 “一般形態論(1)/(2) 단계”는 “一般(人稱)音韻論 단계”에 이은 (구체적) ‘言語化 = 人稱化 = 潛在文化’의 첫 단계이다. 이 단계는 “非力學적 의미적 의미상의 순서의 조직”이 아니라 “力學적 /형태적 의미상의 순서의 조직”이다. 助詞(- \emptyset -이/-가~~-을/-를~~-도, -는, -만)/尊待(- \emptyset /-시/-습/-니)를 예로 들 때, “助詞 Ø단계”가 “屈折 = 終止語尾적指示 = 疑問 → 被指示 = 대답 단계”라면, “助詞 有” = “-이/-가~~-을/-를” 및 “-시~~-습” 단계는 “動詞적 指示 → 被指示” = “屈折적/근원적 指示”와 直結된 “動詞적/구체적/변형적 指示(助詞) → 被指示(助詞)”, 그리고 “Ø 단계”와 “有 단계”的 “생성 단계”로서의 “ ${}_1$ 有 · ${}_2$ 有 단계” 즉 “-도, -는, -만” 및 “-니” 단계는 “代名詞적 指示(代名詞) → 被指示(動詞)” 단계라고 ‘비유’ 될 수 있다(*여기 사용된 예들은 순전히 超言語적 수단으로서 사용된 것이므로 그것은 ‘力學적 조직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). 따라서 이 “力學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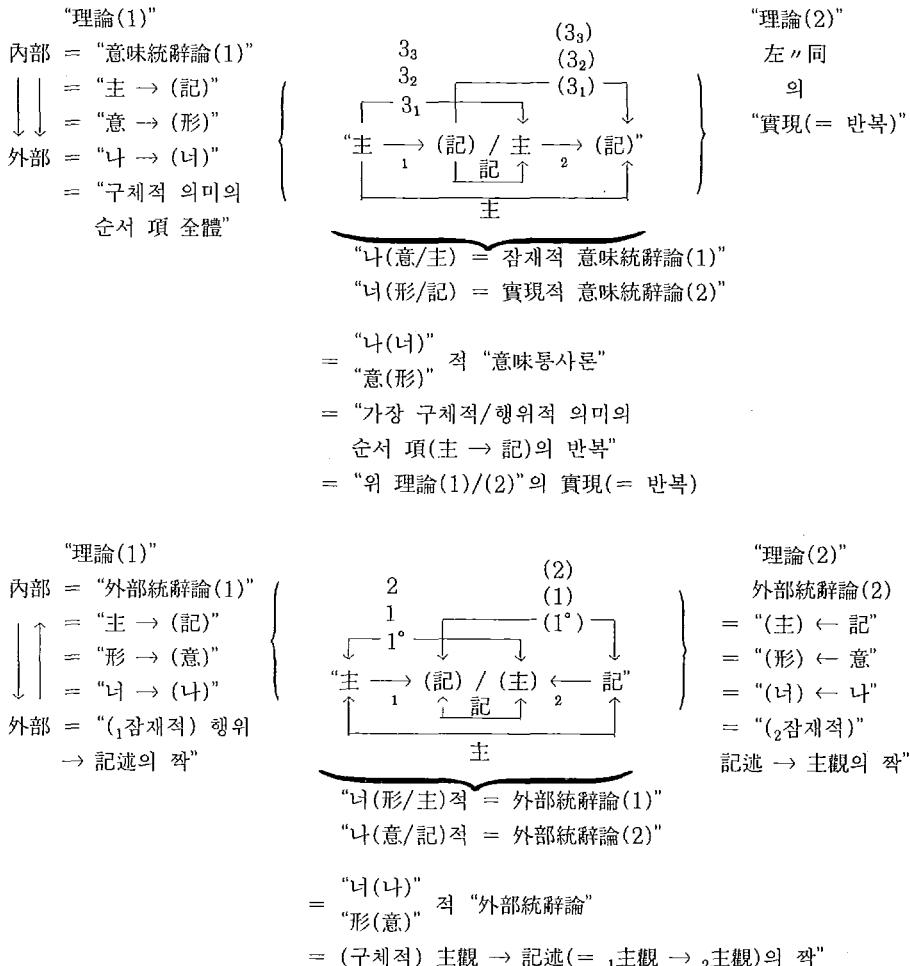
조직”으로서의 “指示 → 被指示”는 “非力學적 조직”的 그것을 모두 ‘否認’ 내지 ‘제거/배제’ 한 ‘조직’이다. 예컨대 “助詞：-이/-가～-을/를” 및 “尊待：-시～-습”은 “행위자 → 행위”의 “계속 반복”으로서의 “主一目”으로서가 아니라, “屈折(근원) → 動詞(변형) → 代名詞(생성)”이라는 “力學적/형태적 조직”에 ‘편입된’ “動詞적 = 변형적 指示(助詞/존대어미) → 被指示(動詞)”이다. 바꿔 말하면 이 “力學적 조직에 편입된” “尊待 = 형태와 助詞 = 의미”는 ‘可視(感)적 구체적 尊待/助詞’로서가 아니라, “潛在文(1)/(2)”로서의 “一般形態論(1)/(2)”의 “力學적 조직” 즉 “근원(굴절 = ₁잠재) → 变形(동사 = ₂잠재) → 生성(대명사 = 구체)적 조직”의 “1차(근원 = ₁잠재)/2차(변형 = ₂잠재)/3차(생성 = 구체)적” “근원(굴절 = ₁잠재) → 变形(동사 = ₂잠재) 生성(대명사 = 구체)”의 “조직” 안에 그 ‘자리(位置)를 확보’ 하고 있는 (力學적) “형태(尊待)와 의미(助詞)의 짹”이다. 따라서 그 “蹇의 位置”的 “一般形態論(1)/(2)의 조직” 안에서의 ‘구체적 발견’은 “3차(생성 = 구체)적 조직”的 “변형(잠재)” 및 “생성(구체)” 단계에서 가능하며, 그것의 ‘추상적 발견’은 “근원(잠재)” 단계에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. 즉 그 “발견”은 “잠재”와 “구체”的 ‘연속’ 또는 ‘相補’ 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. 예컨대 이미 *앞에서 잠시 지적한 바와 같이 (*앞: “一般形態論(1)/(2) 단계와 内部統辭論(1)/(2) 단계”의 그림 밑의 설명 참조), ‘첫째로’: “一般形態論(1) 단계”의 “尊 = F<형태>”/“助 = M<의미>”의 ‘蹇’은 “근원(잠재)적 굴절적(終止語尾) 指示<의문> → 被指示<대답>의 조직”으로서의 ‘非可視(感)적 尊(F) 助(M)의 짹의 뭉치 F(M)’로 부터 출발하여 “변형(잠재)적 동사적 조직”으로서의 ‘非可視(感)적 助(M) → 尊(F)의 짹 M(F)’ (“-아, -개, -지, -고”/“-기”形 主觀助動詞 + “도, 는, 만”: “~먹고 <도, 는, 만> 싶~”/“~기 <도, 는, 만> 좋·싫~”) 단계를 거쳐 “생성(구체)적 대명사적 조직”으로서의 ‘(구체적) 尊(F) 助(M)의 짹 F(M)’ (= “근원적 · 指示적 <이 · 그 · 저>단계”에서의 <-이/-가, -을/-를> 즉 ‘尊 F <이, 그, 저> (助 M)<-이/-가, -을/-를, Ø>의 ‘蹇’ → “변형적 · 동사적 단계”에서의 ‘助 M <-이/-가>-(尊 F <-시>)’의 ‘蹇’ → “생성적 · 대명사적 단계”에서의 ‘尊 F<나, 너>-助 M <그>’의 ‘蹇’), 그에 이어서, ‘둘째로’: 이번에는 앞의 “(1)”과는 ‘逆方向’ 적 조직으로서의 “助 M”/“尊 F”的 ‘蹇’은 “근원(₁잠재)적 ₂굴절(대명사)적 指示 <대답: “나”> → 被指示 <의문: “너”>의 조직”으로서의 ‘₁非可視적 助(M) — 尊(F)의 짹의 뭉치 M(F)’로 부터 출발하여 “₂변형(₂잠재)적 ₂동사적 조직”으로서의 ‘₂非可視(感)적 ‘尊(F) — 助(M)’의 짹 F(M)’(副詞性 “非主觀助動詞” + <도, 는, 만>: “~먹게 <도, -는, -만> 되~”) 단계를 거쳐 “생성적 ₂대명사(終止語尾)적 조직”으로서의 ‘(구체적) 助(M) — 尊(F)의 짹 M(F)’ (= “근원적 · ₁引用적 <-아/-어하더>/<-냐고하더>의 짹 M(F)” → “변형적 · ₂引用적 <-아/-어 肯定 대답>/<-지? 肯定期待의 疑問>” → “생성적 · 自答<-어/-아> ~自問<-나?/-가?> M/대답<-어/-아> ~의문<-야?> F의 짹 M(F)”으로 끝난다(*뒤 “—

般形態論(1)/(2)의 同形의 조작” 참조; 따라서 “非力學적 分析”에서와 같이 “-이/-가 ~-을/-를” 및 “-시/-습”을 각각 따로 떼어서 分析할 것이 아니라, 그들을 動詞에다 붙여서 각각 “-이/-가 動詞”, “-을/-를 動詞”, “-시 動詞”, “-습 動詞”와 같이 “力學적/形態적 翳”으로서의 動詞적 指示(助詞/尊待語尾) → 被指示(動詞)의 내용을 담은 명칭을 붙여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).

‘말’을 특징짓는 ‘가장 일반적인 짹’으로서의 ‘의문(1) ↗ 대답(2)’의 “잠재적 力學적 조작”으로서의 “一般形態論(1)/(2)”는 ‘말의 寶庫’라고 할 수 있다. 이 “(잠재적/말이 아직 안된) 말의 寶庫”로 부터 (말이 되는/구체적) 主觀文(“너는~이 좋/싫든가?”/“나는~이 좋/싫들아”)이 “力學적/형태적”으로 ‘引出’되어 그와 ‘力學적/형태적 짹’을 이루고 있는 것이 “內部統辭論” 단계이다. 이 “內部統辭論”에서 “(1)/(2)”의 ‘째’은 그 앞 단계인 “一般形態論(1)/(2)”의 (순전히 ‘형태’만이 있는) ‘째’의 ‘外部적/구체적’ 즉 ‘動詞가 잠재적으로 등장하는 (1) 指示(형태 = 골절) ↗ (2)被指示(의미 = 動詞)의 짹’이다 (따라서 “(1)”은 “골절” 위주, “(2)”는 “動詞” 위주가 된다).

“非力學적 分析”에서의 “形態統辭論”과 “力學적 分析”에서의 “一般形態論(1)/(2)” 및 “內部統辭論(1)/(2)”의 기본적인 차이는, “구체적/非力學적 행위 = 被指示 = 의미 중심”的 “행위자 = 指示/형태/實現적 · 구체적 主觀 · 記述” → 행위(= 被指示/의미/잠재적 主觀 · 記述)”의 무한 반복으로서의 “(等方向 · 語彙적) 의미상의 순서” 즉 (等方向적) “행위자₁ · 형태₁ · 主觀(-이/-가) → 행위자₂ · 형태₂ · 記述(-을/-를) → 행위 · 의미(-도, -는, -만)”에서 “행위자₁ · 형태₁ · 主觀” / “행위자₂ · 형태₂ · 記述”에 力點을 둔 “(구체적) 의미상의 순서)”가 곧 “形態統辭論” 전체를 지배하는 “理論”임에 반하여, 따라서 “主觀적 = 형태-/잠재-/근원-적: “F”적” “主觀(근원/ 형태/指示”: “F”) → 記述(변형/의미/被指示: “(M)”)” 즉 “主(記)” = “F(M)”과 “행위적 = 의미-/구체-/변형-적: “M”적” “主觀(근원 “F”)” → 記述(변형: “M”) 즉 “(主)記” = “(F)M”을 ‘구분하지 않는,’ 즉 “力學적 分析”에서와 같이 “一般形態論(1)/(2)”와 “內部統辭論(1)/(2)”를 ‘구분하지 않는’ (= ‘구체적 행위의 테두리 안에서 主觀과 記述을 무한히 반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) 理論’임에 반하여 “力學적 分析”에 있어서의 “一般形態論(1)/(2)”와 “內部統辭論(1)/(2)”는, “(잠재적 · 근원적/力學적) 主觀 = 형태 = 指示 중심”的 “主觀(= 指示/근원 · 형태/잠재 · 근원적 ‘主觀 → 記述’) → 記述(= 被指示/변형 · 의미/구체 · 변형적 ‘主觀 ← 記述’)의 有限 반복으로서의 “(逆方向적 · 문법적) 의미상의 순서” 즉 “一般形態論(1) (= 主觀/근원: F)/一般形態論(2)(= 記述/변형: <M>) → 内部統辭論(1)/(2) (= ‘内部 행위’ 즉 内部 생성: M적 主觀 · 記述: <F>M)”이다. 이 “主觀/근원/内部: F”的 테두리 안에서의 “主觀/근원: F”와 “記述/변형: (M)”의 “째”: “F(M)” = “主(記)”: “尊(助)” = “(말이 아직 안된 1잠재적) 一般形態論(1)/(2)”와 ‘直結된 짹’: “(F)M” =

“(主)記” / “(尊)助” = “(말이 되는 $_2$ 잠재적) 内部統辭論(1)/(2)” 가 이루는 ‘内部적 짹’의 ‘外部적/구체적/생성적 짹’ 즉: “(행위적) 主觀-記述”: “外部 M = 外部 行위적 F(M)” = “(外部 行위적) 主(記)” / “(助詞적) 尊(助)” 가 곧 다음의 “구체 단계”로서의 “外部統辭論(1)/(2) 단계”이다.



*설명: “非力學적 分析”에서의 “形態統辭論”이 “구체적/非力學적 行위 中심”的 “행위자-행위”的 ‘계속 반복’으로서의 의미상의 순서: “주관 · 행위자₁ · 형태₁(-이/-가) → 記述 · 행위자₂ · 형태₂(-을/-를) → 행위 · 의미(-도, -는, 만)”에서 “형태₁(행위자₁/主觀)” / “형태₂(행위자₂)”에 力點을 둔 ‘理論’임에 대해서 “意味統辭論”은 “구체적 의미”로서의 “행위”에 力點을 둔 ‘理論’이다. 그러나 이 두 ‘理論’은 모두, 앞의 “形態統辭論”的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, “(근원적/主觀적) 主觀(形態/F) → 記述(의미/<M>)” 즉 “主(記)” =

“F(M)”과 “(변형적/행위적) 主觀(형태/<F>) → 記述(의미/M)” 즉 “(F)M”을 “구분하지 않는”, 즉 다 같이 구체적 행위 “M”的 테두리 안에서의 “主觀(F₁) → 記述(F₂) → 行위(M)”의 “구체적 의미상의 순서”에서 “主觀/記述(형태₁/형태₂: F₁/F₂)”과 “행위₁/행위₂(의미₁/의미₂: M₁/M₂)”의 “반복”에 力點을 두느냐 (形態統辭論의 경우), 그렇지 않고 “행위(의미)”에 力點을 둔 위와 같은 “반복”이냐 (意味統辭論의 경우)라는 “순환론”으로 귀착되는 ‘같은 사실의 반복’에 불과하다. 위 그림에서 “근원₁/근원₂”에 해당하는 “主 → (記)/主 → (記)”은 “반복되는 實現”으로서의 “主觀 → 記述”을, “변₁/변₂”에 해당되는 “3₁, 3₂, 3₃/(3₁), (3₂), (3₃)”은 “반복되는 主 → 記”의 “의미상의 순서의 성격”을, 맨 밑의 “생성”에 해당하는 “主/記”는 가장 구체적/행위적 “의미의 테두리 즉 動詞”를 가리킨다. 그러므로 “意味統辭論”을 지배하는 “理論”으로서의 “의미상의 순서”는: “생성/행위 (= 主 → 記) → 변형/記述 (= 主 → 記) → 근원/主觀 (= 主 → 記)”이 되며, 이 “순서”는 그 앞의 “形態統辭論의 순서”: “근원/주관 (= 主 → 記) 변형/記述 (= 主 → 記) 생성/행위 (= 主 → 記)”와 ‘等方向적/순환론적 짹’이 된다. 따라서 “內部”에 해당하는 “理論”(근원₁/근원₂ 및 변형₁/변형₂)에 해당하는: “主 → (記) / “主 → (記)”의 “의미상의 순서의 성격”에 따르는 “계속 반복”… 즉 “行₁적 主₁ 즉 行₁ → 行₁적 記₁ 즉 主₁” → “行₂적 主₂ 즉 行₂ → 行₂적 記₂ 즉 主₂”…과 “外部”에 해당하는 “理論의 實現 (= 위 “理論”의 “반복”…”은 ‘같은 사실의 반복’으로서의 “순환론적/等方向적(↓↓) 짹”이 된다.

“力學적 分析”에서의 “外部統辭論(1)/(2)”는 앞의 “(力學적 分析에서의) 内部統辭論(1)/(2)”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: “主觀/근원/内部: F”的 테두리 안에서의 “主觀/근원: F”와 “記述/변형: M”的 “짤”: “F(M)” = “主(記) / “尊(助)” 즉 “(말이 아직 안된 1잠재적) 一般形態論(1)/(2)”와 ‘直結된 짹’: “(F)M” = “(主)記” / “(尊)助” 즉 “内部統辭論(1)/(2)”가 이루는 ‘内部적 짹’의 ‘外部적/구체적/생성적 짹’ 즉: “(행위적)主觀-記述”: “(外部 M = 外部 行위적) F(M)” = “(外部 行위적)主(記) / “(助詞적)尊(助)”이다. 이 “(外部 行위적) / “(助詞적)”이라는 ‘변형의 성격’을 나타내는 수식어가 붙은 “F(M) / “主(記) / “尊(助)”가 곧 “(力學적) 外部統辭論(1)/(2)”를 지배하는 “理論”이다. 따라서 “₁근원”에 해당하는 “主 → (記)”와 그에 ‘直結되는 ₂근원’의 “(主)←記”가 이루는 ‘(内部적) 짹’과 그것의 ‘(外部적) 짹’ 즉 ‘생성적 主 → (記)’가 이루는 ‘力學적 조작’의 ‘먼저 位置’에 자리 잡은 “₁근원”的 “主 → (記)”의 “主”를 行위 動詞(“먹-” / “가-”)로 잡은 “行<대답: 먹들(아)> → (記)<대답: 좋아하들(아)>”가 이 “(力學적) 조작” 전체를 지배하는 “理論”의 位置에 서게 된다. 즉 이 “₁근원”的 테두리 안에서 그와 直結된 “₂근원”的 記<대답: 좋아하들(아)> → 主<대답: 좋들(아)>가 ‘内部적 짹’을 이루고, 그 짹이 “主<의문: 좋든(야)> → 記<대답: 좋들(아)>”와 “外部적 짹”을 이룬다. 이와 같이 “(근원적)主 → (記)”와 “(변형적)(主) ← 記”가 ‘(근원적 · 잠재적 · 형태적)의미상의 순서(= 변형의 성

격)'에 따라 "力學적/逆方向적"으로 有限히 반복되는, 따라서 분명히 구분되는 "근원(\rightarrow)"과 "변형(\leftarrow)"의 "짝"으로 이루어진 "力學적 조작"은 앞의 "非力學적 조작"이 "(근원적)主 → (記)"와 "(변형적)主 → (記)"를 구분함이 없이 '(구체적/어휘적)의미상의 순서(= 변형의 성격)'에 따라 "순환론적/等方向적/非力學적(\rightarrow)으로 무한히 반복되는 짝"을 이루고 있는 것과는 대립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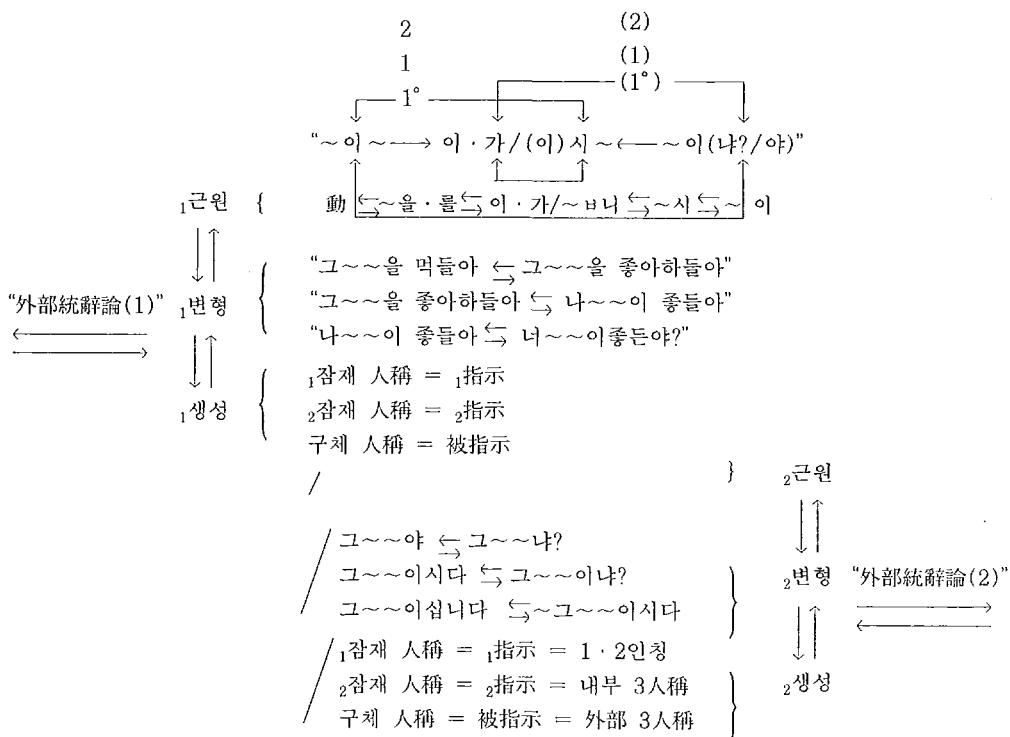
위 그림에서 '첫째로': "변형 1°(1°)"의 " $F \rightarrow (M)/(F) \leftarrow M$ " 즉 右의 " $(F) \leftarrow M$ "의 " $M<行爲>/左의 F \rightarrow (M)$ "의 " $F<記述>$ "는 앞 "一般形態論(1)/(2)"의 "理論 단계" (= 1차적 ₁근원/₂근원 단계) 및 "內部統辭論(1)/(2)"의 "理論 단계" (= 1차적 ₁변형/₂변형 단계)에 이은 "外部統辭論(1)/(2)"의 "₁근원/₂근원적)理論 단계(1)/(2)" (= 1차적 ₁생성/₂생성 단계)에 해당하고; '둘째로': "변형 1(1)"의 " $F \rightarrow (M)/(F) \leftarrow M$ " 즉 左의 " $F \rightarrow (M)$ "의 " $F<主>/ (M)<記>$ "; 右의 " $(F) \leftarrow M$ "의 " $M<記>/ (F)<主>$ "는 각각 (₁변형적) 理論 단계(1)(= 2차적 근원/변형/₁생성/₂생성 단계)에 해당하고, 거꾸로, 右의 " $(F) \leftarrow M$ "의 " $M / (F)$ "; 左의 " $F \rightarrow (M)$ " " $F / (M)$ "은 각각 (₂변형적) 理論 단계(2)(= *위 "(1)"과 같음)에 해당한다. '셋째로': "변형 1(1)"의 " $F \rightarrow (M)/(F) \leftarrow M$ " 즉 *위 그림의 "上(↑↑)/下(↑↑)"의 "생성 단계" 표시에서, 그 '첫째로(변형 "1"의 경우)': "上: $(M)/(F)$ "의 " (M) " / "下: $F \quad M$ "의 " F " / "上의 (M)"과 "下의 F"의 "짝"은 각각 (₁근원적) 外部統辭論(1) (= ₁근원적 · 3차적 근원<行爲>/변형<記述>/생성<主觀>단계)에 해당하고, 그 '둘째로(변형 "(1)"의 경우)': "上: $(M)/(F)$ "의 " (F) " / "下: $F \quad M$ "의 " M " / "上의 (F)"와 "下의 M"의 "짝"은 각각 ("₁변형적) 外部統辭論(1)(= ₁변형적 · 3차적 근원<굴절적 1 · 2人稱>/변형<동사적 · 内部적 3人稱>/생성<대명사적 · 外部적 3人稱 = 外部적 1 · 2人稱>단계)에 해당하고, "그 첫째 = ₁근원"과 "그 둘째 = ₁변형"의 "생성 단계"로서의 "변형 2(2)"의 " $F \rightarrow (M)/(F) \leftarrow M$ " 즉 *위 그림의 "下(↑↑)/上(↑↑)"의 "생성 단계" 표시에서: '첫째로(변형 "2"의 경우)': "下: $F \quad M$ "의 " F " / "上: $(M)/(F)$ "의 " (M) " / "下의 F"와 "上의 M"의 "짝"은 각각 ("₁생성적 = ₂근원적) 外部統辭論(2)" (= ₁생성적/₂근원적 · 3차적 근원<主觀>/변형<記述>/생성<行爲> 단계)에 해당하고, '둘째로(변형 "2"의 경우)': "下: $F \quad M$ "의 " M " / "上: $(M)/(F)$ "의 " (F) " / "下의 M"과 "上의 (F)"의 "짝"은 각각 ("₂생성적 = ₂변형적) 外部統辭論(2)" (= ₂생성적/₂변형적 · 3차적 근원<굴절적 1 · 2人稱>/변형<동사적 · 内部적 3人稱>/생성<대명사적 · 外部적 3人稱>)에 해당한다(*앞 "一般形態論(1)/(2)"의 "(1)"과 "(2)"의 "설명 項" 참조: *뒤 "附錄: 一般形態論의 同形의 조작" 참조).

*위 그림에서 "理論 단계(1)/(2)"와 "外部統辭論(1)/(2)"가 "非力學적 조작"에서의 "순환론적 等方向적 반복(↓↓)"과는 달리 "逆方向(↑↑)"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상에서 對比한 "非力學/力學"이라는 단순한 구별을 떠나서, '傳統적 歷史比較言語學'의 '理論'(↓)

과 ‘再構形(\downarrow)’의 ‘等方向性’과는 달리 ‘等方向적 언어 사실’ 즉 再構形(\downarrow)³⁾을 “力學적 조직”의 ‘再構’에 이용하되 그것을 ‘탈피’ 내지 ‘제거/배제’하는 힘을 그 자체 안에 스스로 지니고 있는 ‘再構形’임을 뜻한다.

4) 外部統辭論(1)/(2)의 “助詞”와 “尊待”的 力學적 조직: 결론.

“一般形態論(1)/(2)” 즉 “尊(助)” = “형태(의미)” = “F(M)”과 “內部統辭論(1)/(2)” 즉 “(尊)助” = “(형태)의미” = “(F)M”의 “생성” 단계로서의 “外部統辭論(1)/(2)” 단계 즉 “M(의미/助詞)적 (= 변형 “1(1)”, “2(2)”적)” “F(M) = 尊(助)” 즉 “M(F) = 助(尊)”은 위 “(₁근원 - / ₁변형적) 外部統辭論(1)”과 “(₂근원 - / ₂변형적) 外部統辭論(2)”를 각각 갖춘, “助詞”와 “尊待”的 “짝”이다. 즉 *위 “非力學적 조직”으로서의 “助詞”와 “尊待”에서 그것을 ‘再構’에 이용하되 결국 그것을 ‘脫皮’ 내지 ‘제거/배제’한 “力學적 조직” 즉 “助詞”的 경우는 “Ø”으로서의 “-이다”〈指示辭〉를 필두로 한 “-이/가”〈被指示辭〉를, “尊待”的 경우는 “반말”로서의 “-이다”〈指示辭〉를 필두로 한 “-시”〈被指示辭〉를, 각각 “짝”으로 한 “변형: 1°, 1, 2/(1°), (1), (2)”의 “助詞와 尊待의 力學적 조직”이다. 이것을 한 눈으로 볼 수 있게 *위 “그림 설명”을 토대로하여 ‘그림’으로 표시하고 ‘설명’을 붙이면 아래와 같다(*화살표시 “ \hookrightarrow ”는 밑 “ \rightarrow ”이 ‘먼저’, 위 “ \leftarrow ”가 ‘나중’임; 또 “의문”/“대답” = “먼저”/“나중”的 순서임; “/” 표시는 左/右 구분 표시임):



설명(1) :

“助詞”의 경우는 ‘첫째로’ (*위의 “그림 설명”에서의) “_{(1)근원적} 外部統辭論(1)” = “_{(1)근원적 · 3차적} _{1근<1行} (_{1근} _{1M} _{1行}) : “그 사람~을 먹들~” → _{1변} _{1F} _{1記} : “그 사람~을 좋아하들~”) → _{1변<1記} (_{1근} _{1F} _{1記}) : “그 사람~을 좋아하들~” → _{1변} _{1M} _{1主} : “나~이 좋들~”) → _{1생<1主} (_{1근} _{1M} _{1主}) : “나~이 좋들~” → _{1변} _{1F} _{1記} : “너~이 좋든~”)”과 그 “_{1근/1변/1생}” 각각의 팔호() 안의 “짝(複合) (_{1근} → _{1변})”이 ‘逆方向化/구체화’ 됨으로써 ‘생성’ 되는 “人稱”으로서의 “_{(1)변형적} 外部統辭論(1)” = “_{(1)변형적 · 3차적} _{1근<1변적} _{1근 人稱} = _{1잠재 人稱}” → _{1변<1변적} _{1변 인칭} = _{2潛在 人稱} → _{1생<1변적} _{1생 人稱} = _{1구체 인칭}”에서의 각각의 人稱과 ‘짝’을 이루고, ‘둘째로’ : 위 “_{1근원}”과 “_{1변형}”의 (内部적) ‘짝’의 ‘생성적/外部적 (= 위 “_{1근원}”과 “_{1변형}”을 ‘구체-/逆方向化’ 시킨, 즉 “근/변/생” 및 “行/記/主”에 달린 숫자 “1”을 “2”로 하고, 화살표시(→)를 逆(←)으로 한) 짝’으로서의 “_{(2)근원적} 外部統辭論(2)” = “_{(2)근원적 · 3차적} _{2근<2行} (“그 사람~을 먹들” ← “그 사람~을 좋아하들~”) ← _{2변<2記} (“그 사람~을 좋아하들” ← “나~이 좋들~”) ← _{2생<2主} (“나~이 좋들~” ← “너~이 좋든~”)”가 “_{(2)변형적} 外部統辭論(2)” = “_{(2)변형적 · 3차적} _{2근<1잠재 인칭} ← _{2변<2잠재 인칭} ← _{2생<2구체 인칭}”에서의 각각의 人稱과 ‘짝’을 이룬다.

설명(2) :

“尊待”는 “助詞”的 ‘逆方向적 짝’ 이므로, 이 점을 염두에 두고 “外部統辭論(1)/(2)”를 작성할 수 있다. 변잡을 피하기 위해서 ()안에는 그 예만을 표시하고 “(2)”의 “근/변/생” 및 “主/記/行”은 팔호로 표시하여 위 “助詞”的 경우와 같이 “外部統辭論(1)/(2)”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:

- 1) (_{1근원적<2근원적}) 外部統辭論(1)(2) = (_{1근적<2근적 · 3차적}) _{1근(2근)<1主(2主)} (“반말 의문”: “그 사람~나?” ↲ “반말 대답”: “그 사람~이야”) ← _{1변<1記(2記)} (“반말 의문”: “그 사람~이냐?” ↲ “客語 尊待 대답”: “그사람~이시다”) ← _{1생(2생)<1行(2行)} (“主·客語 존대 대답”: “그분~이시다”) ↲ “極尊待 대답”: “그분~이십니다”);
- 2) (_{1변형<2변형}적) 外部統辭論(1)/(2) = (_{1변<2변}적 · 3차적) _{1근(2근)<1잠재 인칭} ← _{1변(2변)<2잠재 인칭} ↲ _{1생(2생)<1구체(2구체)} 인칭”.

*주의: 이상의 “尊待와 “助詞”的 각 단계는 “(深層적) 나무 그림”⁴⁾에도 배치 · 분석 할 수 있음에 *주의.

이상에서 우리는 助詞와 尊待法이라는 ‘전통적 · 物理적 사실의 짝’ 을 中心 즉 共通基로

3)/4) *앞 “註1)”의 “變形理論과 그 類型의 定立作業” / “記號의 非恣意性과 文法體系” 참조.

하여, “深層-/形態-/力學적 人稱의 조작”으로서의 “指示 → 被指示의 짹의 조작”과, 그것을 ‘간접적으로 뒷받침(支持)하는 데 적절한 物理적 사실의 짹’으로 (再)정리된 “表面-/ 實物 意味-/非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의 짹의 조작”과를 對比시킴으로써, “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의 짹의 조작”에 있어서의 “選擇·意圖의 主體” 즉 “指示 要素”가 ‘脫物理-/精神적 言語活動의 조작’에 있어서의 “너” 중심의 “근원적 人稱” 즉 “尊(助) = 너(나) = 形(意) = F(M)”으로 대표되는 ‘有限 反復의 출발항’으로서의 “근원적 形態”임에 반하여, “非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의 짹의 조작”에 있어서의 “主體”는 ‘實物·物質적 言語活動’의 “나” 중심의 “表面적 人稱” 즉 “助(尊) = 나(너) = 意(形) = M(F)”로 표시되는 “表面적 意味를 深層적 形態로 誤認·錯覺한 사설상의 意味” 즉 ‘無限反復 내지 循環論의 출발점’으로서의 “實物적 人間”임을 지적한 바 있다.

이 (“力學적 조작”과 “非力學적 조작”의) 比較는 곧 겉으로 보기에는 추상적이어서 안 움직이는 듯하나 사실상으로는 움직이는 分析活動 즉 ‘精神(= 形態)의 태두리 안에서 物質(= 意味)을 精神(= 形態)으로 分析’ 함으로서 物質(= 意味)이 精神(= 形態)적 성격을 띠게 되는 等質적·有限反復적·精神적 分析을 그 ‘唯一한 分析原理’로 삼는 ‘深層分析적 관점’이, 겉으로는 구체적이어서 움직이는 듯하나 사실상으로는 안 움직이는 (實物로서의 人間 = 意味 중심의 選擇·意圖를 憨意적·人爲적으로 설정하여 그것으로 부터 言語 = 形態를 설명하는) 人爲적 分析活動 즉 ‘物質(= 意味)의 태두리 안에서 物質(= 意味)을 物質(= 意味)로 分析’ 함으로써 여전히 物質(= 意味)로 남게 되는 異質적·無限反復적·表面적 分析을 ‘근원적 形態 즉 深層적 分析’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전통적 관점을, 否認 내지 제거/배제하는 힘을 그 자체 안에 스스로 지닌 ‘統一化된 근원적 人稱의 조작의 理論’ 또는 ‘근원적 言語活動의 조작의 理論’임을, 보이는 것이다.

다른 한편으로 (본 연구에서는 지적되지 않았으나 이미 지적된 바 있는⁵⁾) 위 ‘比較’와一見 그 궤도를 같이 하는 듯 보이는 ‘比較’로서 위 “근원적 力學적 관점”과, 전통적 관점을 ‘탈피’하면서도 여전히 “實物·意味적 태두리”에 머물고 있는 “전통적·假 근원 단계의 力學적 관점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점과의 ‘比較’를 들 수 있다.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구분한 “근원적 理論(一般<人稱>音韻論) → 一般形態論(1)/(2) → 内部統辭論(1)/(2) → 外部統辭論(1)/(2)”의 단계를 밟지 않고 직접으로 “外部統辭論”을 다루면서 그것을 ‘근원적 설명’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“假外部統辭論 단계”와의 比較가 곧 그것이다.

위와 같은 특징을 지닌 “統一化된 指示 → 被指示의 짹의 조작” 즉 ‘근원적 人稱의 力學적 조작의 理論’은 전통적 관점을 초월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言語活動의 근원적·深層적 조작을 파악하는 데 지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.

5) 앞 “註1)”의 “位置言語學과 統辭論” 참조.

현대 한국어의 一般形態論(1)↓/(2)↑의 同形의 조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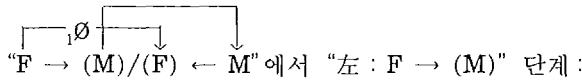
*숫자 및 순서 표시에서 “(I)/(II)/(III)”은 “일차적 근원(屈折: “屈”)/변형(動詞: “動”)/생성(代名詞: “代”)적 指示(被指示)” 그리고 “(I)/(II)/(III)” 각각의 “변형”: “Ø”/“1°”/“1”은 그 각각의 ‘근원적 변형의 성격’을: “(1)/(2)/(3)”은 “2차적 근/변/생적 指(被)”: “₁C/₂C/D”는 3차적 근/변/생적 指(被): “指”(“指”) 및 “被”(“被”)는 “먼저”(“나중”): “₁근(屈)/₁변(動)/₁생(代)~₂생(代)”에 달린 숫자 표시(“1/2”)는 “一般形態論(1) 단계(↓)”를 각각 표시한다. 또 위 각각의 위치에서의 “指(被)”를 “(橫直)對角線 그림”과 그에 대응하는 “韓語의 예”로써 명시한다.

(I) ₁근 = ₁屈적 指(被) 단계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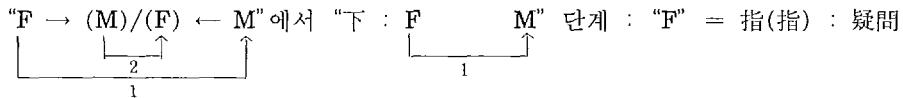
변형 “Ø” 단계

= “F → (M)/(F) ← M”에서 “左: F → (M)” 단계:

(1) ₁근 = ₂屈적 指(被) 단계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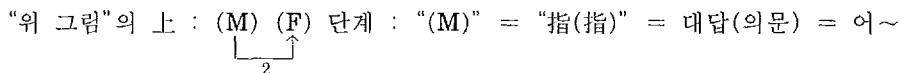


₁C : ₁근 = ₁屈적 指(被) 단계: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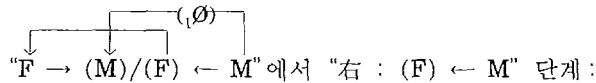
(대답) = “야(으)이? (으)!”/“M” = (被)被 : (Ø)Ø;

₂C : ₁변 = ₁動적 指(被) 단계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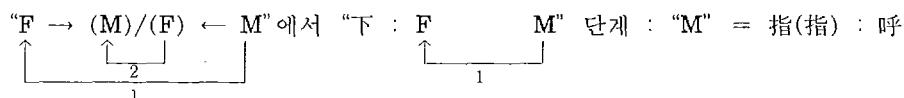


야(으)이? (으)!”/“(F)” = (被)被 : (Ø)Ø;

(2) ₁변 = ₁動적 指(被) 단계:



D : ₁근 = ₁屈적 指(被) 단계 :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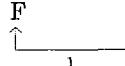
格~감탄(으) = 야!(으)/“F” = (被)被 : (Ø)Ø;

₁C : ₁변 = ₁動적 指(被) 단계 :

“위 그림”에서 “上 : (M) (F)” 단계 : “(F)” = “指(指)” : 自問(自答) =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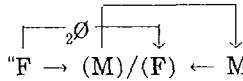

-나~가?(〃)/“(M)” = “(被)被” : (Ø)Ø;

₂C : ₁생 = ₁代적 指(被) 단계 :

“위 그림”에서 “下 : F M” 단계 : “M” = 指(指) : 自答(自問) =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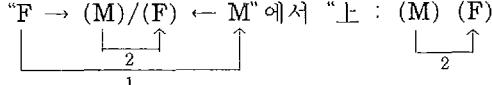
-이~이?(〃)/“F” = “(被)被” : (Ø)Ø;

(3-1) ₁生 = ₁代적 指(被) 단계 :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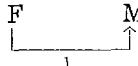
“F → (M)/(F) ← M”에서 “左 : F → (M)” 단계 :

D : ₁근 = ₁屈적 指(被) 단계 :

“F → (M)/(F) ← M”에서 “上 : (M) (F)” 단계 : “(M)” = “指(指)” : 肯定


對答 期待(肯定 對答) = -지(〃)/“(F)” = “(被)被” : (Ø)Ø;

₁C : ₁변 = ₁動적 指(被) 단계 :

“위 그림”에서 “下 : F M” 단계 : “F” = “指(指)” : 대답(대답) =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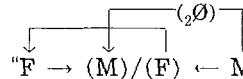
-이~이?(〃)/“M” = “(被)被” : (Ø)Ø;

₂C : ₁생 = ₁代적 指(被) 단계 :

“위 그림”에서 上 : (M) (F) 단계 : “(M)” = “指(指)” : 반문(〃) = -나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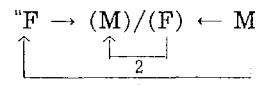

(〃)/“(F)” = “(被)被” = (Ø)Ø;

(3-2) ₂생 = ₂代적 指(被) 단계 :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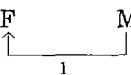
“F → (M)/(F) ← M”에서 “右 : (F) ← M” 단계 :

₁C : ₁근 = ₁屈적 指(被) 단계 :

“F → (M)/(F) ← M”에서 “上 : (M) (F)” 단계 : “(F)” = “指(指)” : 의문


인용 연결(〃) = -나고(〃)/“(M)” = “(被)被” : (하더)하더 ;

$_2C : _1\text{변} = _1\text{代적 指(被) 단계}$:

“위 그림”에서 “下 : F  M” 단계 : “M” = “指(指)” : 대답 인용 연결

(〃) = -어 ~ -아(〃)/“F” = “(被)被” : (하더)하더;

D : $_1\text{생} = _1\text{代적 指(被) 단계}$:

“위 그림”에서 “上 : (M) (F)  (F)” 단계 : “(F)” = “指(指)” : $'_1\langle\text{의문-대답}\rangle$ 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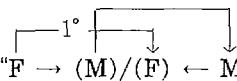
併置的 인용 連結” (〃) = -지(〃)/“(M)” = “(被)被” = (-모르겠)-알겠;

(Ⅱ) $_1\text{변} = _1\text{動적 指(被) 단계}$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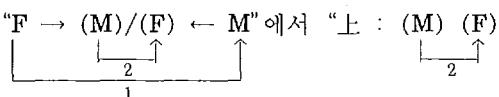
변형 “ 1° ” 단계

= “F → (M)/(F) ← M”에서 “左 : F → (M)” 단계:

(1) $_1\text{근} = _1\text{屈적 指(被) 단계}$:

 “F → (M)/(F) ← M”에서 “左 : F → (M)” 단계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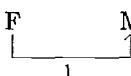
D : $_1\text{근} = _1\text{屈적 指(被) 단계}$:

 “F → (M)/(F) ← M”에서 “上 : (M) (F)  (F)” 단계 : “(M)” = 指(指) : 主觀

적 連結 · 時制語尾形(非主觀〃) = “-겠~ -고있~ -았·었~ -ㄴ(는)…(〃〃)

/“(F)” = “被(〃)” = “알 ~ 모르 ~ …” (“먹 ~ 가 …”).

$_1C : _1\text{변} = _1\text{動적 指(被) 단계}$:

“위 그림”에서 “下 : F  M” 단계 : “F” = “指(〃)” : 主觀적 目的語形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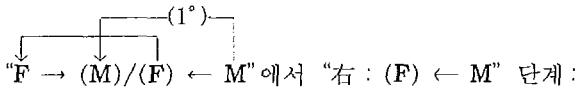
(非主觀〃) = “(의) 그 저)것(〈〃〉말, 사람…)/“M” = “被(〃)” = “-겠 ~ -고있 ~ -았·었 ~ -ㄴ ~ -는 …” (“〃〃”).

$_2C : _1\text{생} = _1\text{代적 指(被) 단계}$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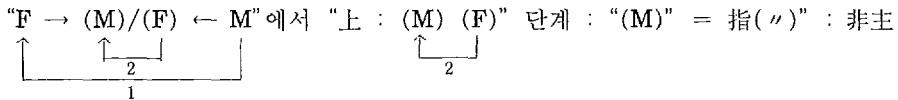
“위 그림”에서 “上 : (M) (F)  (F)” 단계 : “(M)” = “指(〃)” : 主觀連結語尾形

(非主觀〃) = “-고~ -제~ -어~ -아 · 어~ - ~ Ø · 룰~ -” (“〃〃”)/“(F)” = “被(〃)” = 主觀時 制語尾形(非主觀〃) = “-从此~ -할~ - ~ Ø · 룰~ -” (“〃〃”).

(2) $_1\text{변} = _1\text{動적 指(被) 단계}$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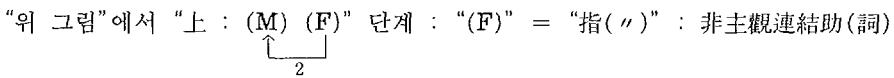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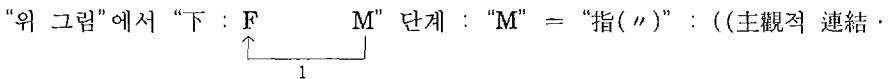


$D : _1\text{근} = _1\text{屈적 指(被) 단계}$: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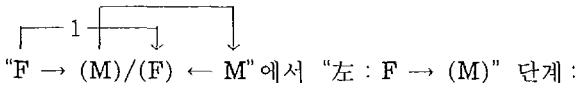
觀 連結적 지시사 (主觀 “ ”) = “(먹)고(말다)~(먹)어(버리다)~(먹)게
(하·되다)~(먹)지(아니하다)~(먹)기(도·는·만·하다)” (“(먹)고(싫다)~
(먹)어(보았다)~(쉽)하)계 〈도〉〈못간다〉~〈먹〉지〈못한다〉~〈먹·가〉기〈쉽·
어렵·좋·싫〉~〈먹·가〉음·□〈직하다〉)/“(F)” = “被(”) = “-말(다)~-
버리(다)~-하·되(다)~-아니하(다)~-하(다) (-싫(다)~-보았(다)~-못
가(ㄴ다)~-못하(다)~-쉽·어렵·좋·싫(다)~-직하(다)”).

$_1C : _1\text{변} = _1\text{動적 指(被) 단계}$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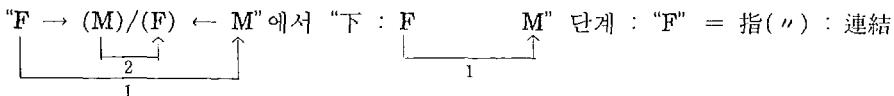


動(詞)形 지시사(主觀 ”) = *위 “2C”的 逆임/(M)” = “被(”) : *위 “2C”
의 逆임.

(3) $_1\text{생} = _1\text{代적 指(被) 단계}$:



$_1C : _1\text{근} = _1\text{屈적 指(被) 단계}$: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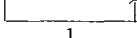
語尾形 지시사(終結 “) = “(밥 좀 먹)게 (조용해라)~(내가 아까 보)니까
 (그 사람 가더라)”(〈저리가〉게! ~〈가日〉니까?”)/“M” = “被(〃)” = “먹” ~
 “보”(“가” ~ “가日”).

(₂C) : ₁변 = ₁動적 指(被) 단계 :

“위 그림”에서 “上 : (M) (F)” 단계 : “(M)” = “指(〃)” = *위 “₁C” 의 逆임/


“(F)” = “被(〃)” = *위 “₁C” 의 逆임.

(D) : ₁생 = ₁代적 指(被) 단계 :

“위 그림”의 下 : F M 단계 : “F” = “指(〃)” = *위 “₁C” 과 外形이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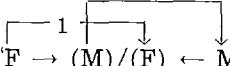
갈되 代名詞가 나타남/ “M” = “被(〃)” = *위 “指”와 같음.

(III) ₁생 = ₁代적 指(被) 단계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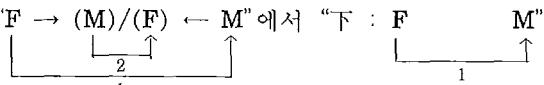
변형 “1” 단계

= “F → (M)/(F) ← M”에서 “左 : F → (M)” 단계 :

(1) ₁근 = ₁屈적 指(被) 단계 :


 “F → (M)/(F) ← M”에서 “左 : F → (M)” 단계 :

₁C : ₁근 = ₁屈적 指(被) 단계 :


 “F → (M)/(F) ← M”에서 “下 : F M” 단계 : “F” = 指(〃) : 近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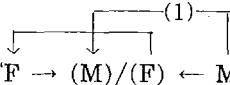
(中稱) 지시사 = “의”(“그”)/“M” = “被(〃)” : 遠稱 피지시사 = “저”(〃).

₂C : ₁변 = ₁動적 指(被) 단계 :

“위 그림”에서 “上 : (M) (F)” 단계 : “(M)” = “指(〃)” : 與格形 지시사


(所有格 〃〃) = “에게(께)”(“의”)/(“F”) = “被(〃)” : 2人稱形 지시사(1
 인칭 〃) = “너”(“나”).

(2) ₁변 = ₁動적 指(被) 단계 :


 “F → (M)/(F) ← M”에서 “右 : (F) ← M” 단계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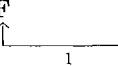
D : ₁근 = ₁屈적 指(被) 단계 :

“위 그림”에서 “下 : F  M” 단계 : “M” = “指(〃)” : 1人稱 지시사(2인칭 〃) = “나”(“너”)/“F” = “被(〃)” : 不定形 피지시사(〃) = “누구”·“아무개”(〃).

₁C : ₁변 = ₁動적 指(被) 단계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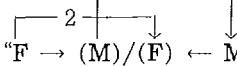
“위 그림”에서 “上 : (M) (F) ” 단계 : “(F)” = “指(指)” : 目的格形 피지시사(主格 〃) = “을 · 를”(“의 · 가”)/“(M)” = “被(〃)” : 目的格形 피지시사(主格 〃) = “너”(“나”).

₂C : ₁생 = ₁代적 指(被) 단계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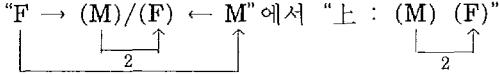
“위 그림”에서 “下 : F  M” 단계 : “M” = “指(〃)” = 主格 · 零格形

지시사(目的格 · 〃) = “〈명사〉밥 + Ø”(〃)/“F” = “被(〃)” : 어휘성 피지시사(〃) = “어느” · “새” · “무슨 · 몇…”,

(3-1) ₁생 = ₁代적 指(被) 단계 :

“ F → (M)/(F) ← M”에서 “左 : F → (M)” 단계 :

D : ₁근 = ₁屈적 指(被) 단계 :

“ F → (M)/(F) ← M”에서 “上 : (M) (F)” 단계 : “(M)” = “指(〃)” : 終結

적 · 不完全 冠形形 지시사(連結적 〃) = “(어)느~(무)순~(어)면~이 · 그 · 저)린…”(“〈어느〉것 ~〈무〉엇 ~〈누〉구”)/“(F)” = “被(〃)” : 종결적 · 3인칭 대명사 · 여격 · 특수조사형 피지시사 (연결적 · 1/2인칭 · 대명사 · 주/목적격 조사형 피지시사) = “그~-에게(께)~-이 · 가~-을 · 를~-도 · 는 · 만~(주다) + Ø(목적격형 반말)~(드리) + Ø · (가) + ㅂ(“존대접사)~가(ㅂ니)(極존대)~(먹) + Ø 〈非피동형 접사)~(먹)히(다)〈피동형 접사)~(가더)ㄹ(아) · (먹어)ㄹ(아)〈대답 · 명령형 종결어미형 특수조사)~(-고있 · 먹)는 · (먹)은 · (하)ㄴ · (먹 · 하)ㄹ 〈관형형 특수조사)…~(가)더(ㄴ이아?) · (가)더ㄹ(아) 〈동사형 복수접사)~(빨리)들 · (가)들(자거라)〈부사형 복수 접사)… (“나 · 너 ~에(께)서 ~-이 · 가~-을 · 를 ~(먹) + Ø 〈주격형 반말)~(잡수) + 시(주격형

존대접사>~(먹) + Ø<非사역형 접사>~(먹) + 이<사역형 접사>~(가더·가느)ㄴ(야?)/(먹 느)ㄴ(야?/다)<의문·대답형 종결어미형 특수조사>~(나~먹)는~은/(나~먹)를~을<명사·대명사형 특수 조사>…~(가ㄴ)다/(가)더(르아)<직접/간접 종결·연결어미>~(우리~사람)들<대명사·명사형 복수접사>”…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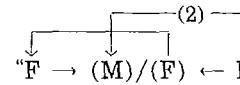
₁C : ₁번 = ₁動적 指(被) 단계 :

“위 그림”에서 下 : F M 단계 : “F” = “指(〃)” : 명사형 지시사(관형〃) = “것”(“-ㄴ”)/“M” = “被(〃)” : 명사형 피지시사(관형형〃) = “먹”(는 것)(“먹”〈는〉)…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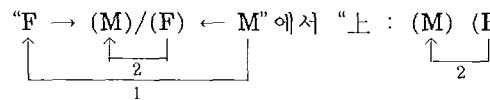
₂C : ₁생 = ₁代적 指(被) 단계 :

“위 그림”에서 上 : (M) (F) 단계 : “M” = “指(〃)” : *위 “₁C”的 逆임/
“(F)” = 被(〃) : *위 “₁C”的 逆임.

(3-2) ₂생 = ₂代적 指(被) 단계 :

 “F → (M)/(F) ← M”에서 “右 : (F) ← M” 단계 :

₁C : ₁근 = ₁屈적 指(被) 단계 :

 “F → (M)/(F) ← M”에서 “上 : (M) (F)” 단계 : “(F)” = 指(〃) : 1/2인

칭형·주관동사형 지시사(3인칭형·기술동사형〃) = “나·너(그사람 좋~싫)”(“그사람〈키 크~작〉”)/“(M)” = “被(〃)” : 주관형 피지시사(기술형〃) = “그사람 (좋~싫)”(“키〈크~작〉”).

₂C : ₁번 = ₁動적 指(被) 단계 :

“위 그림”에서 “下 : F M” 단계 : “M” = “指(指)” : 3인칭형·기술동

사형 지시사(1/2인칭형·주관동사형〃) = “키(크~작)”(“그사람〈좋~싫〉”)/“F” = “被(〃)” : 3인칭형 피지시사(1/2인칭형〃) = “(키)크~작”(“〈그 사람〉좋~싫”).

D : ₁생 = ₁代적 指(被) 단계 :

“위 그림”에서 “上 : (M) (F)” 단계 : “(F)” = “指(〃)” : 1/2인칭형·주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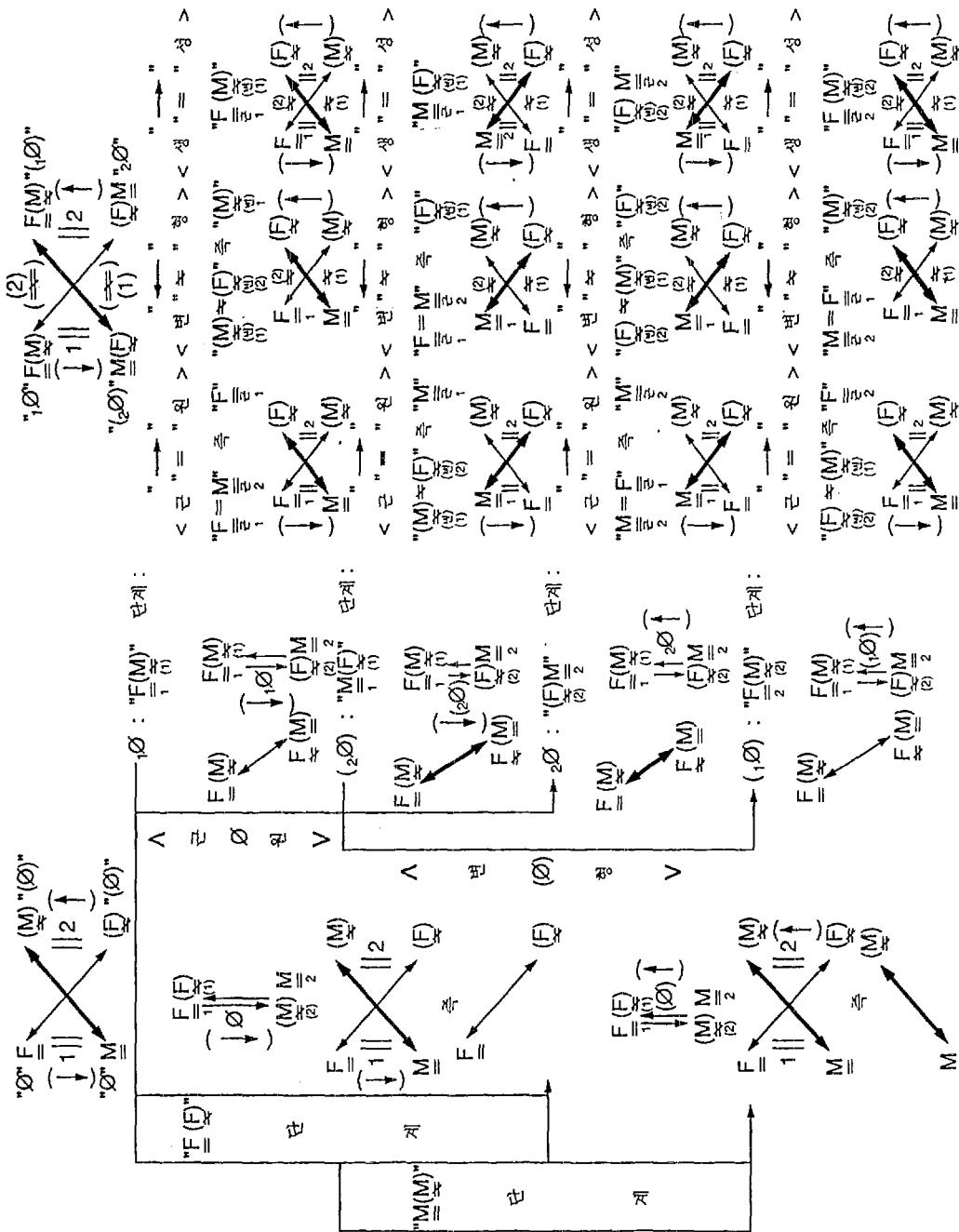
동사형 지시사(3인칭형·기술동사형·지시사) = “나·너 그사람(좋~싫더라/
더냐)” (“그사람 키 크~작<더라>”)/“(M)” = “被(“”)” : 1/2인칭형 피지시사
(3인칭 형 ”) = “좋~싫더ㄹ(들)” (“크~작더ㄹ<들>”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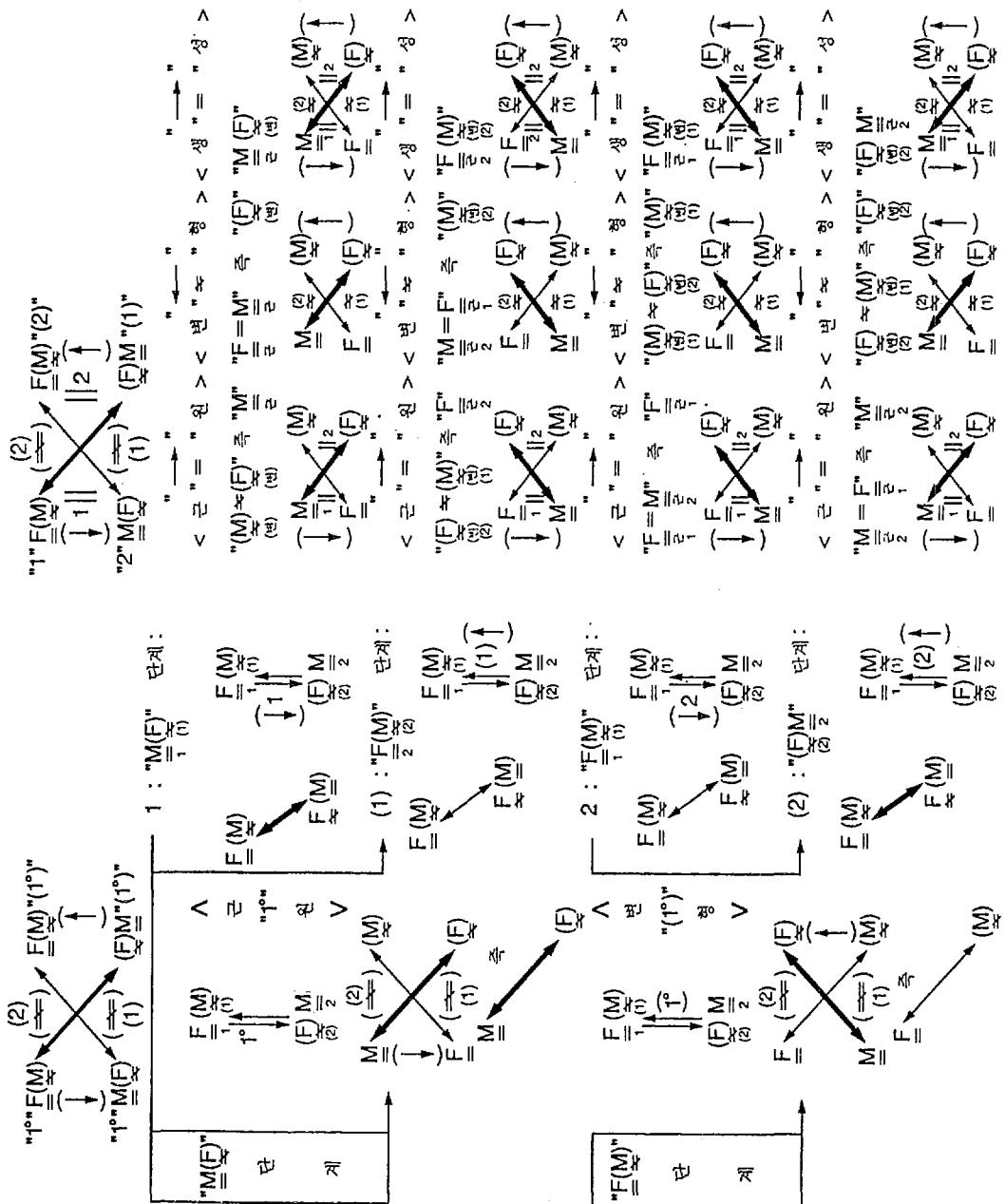
*주의: 韓語에 대응하는 ‘佛語의 一般形態論의 조직’에 대해서는 *앞 註(1)의 L’Analyse Synaptique (Non Arbitraire) de Forme/Matière: Représentation Métalinguistique et Nominalisations en Français-Coréen 참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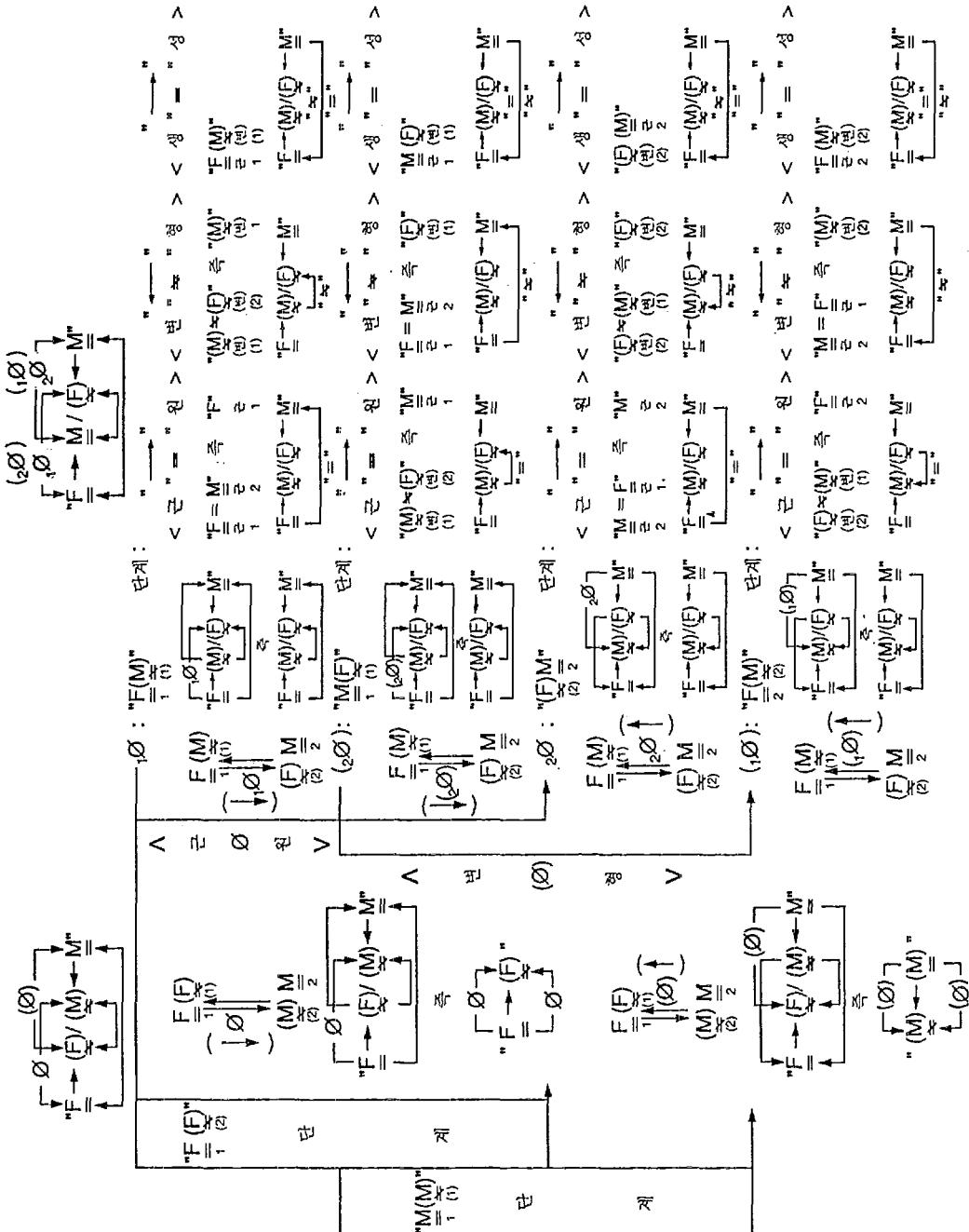
最大의 指示 → 被指示(= 同形)의 組織의 그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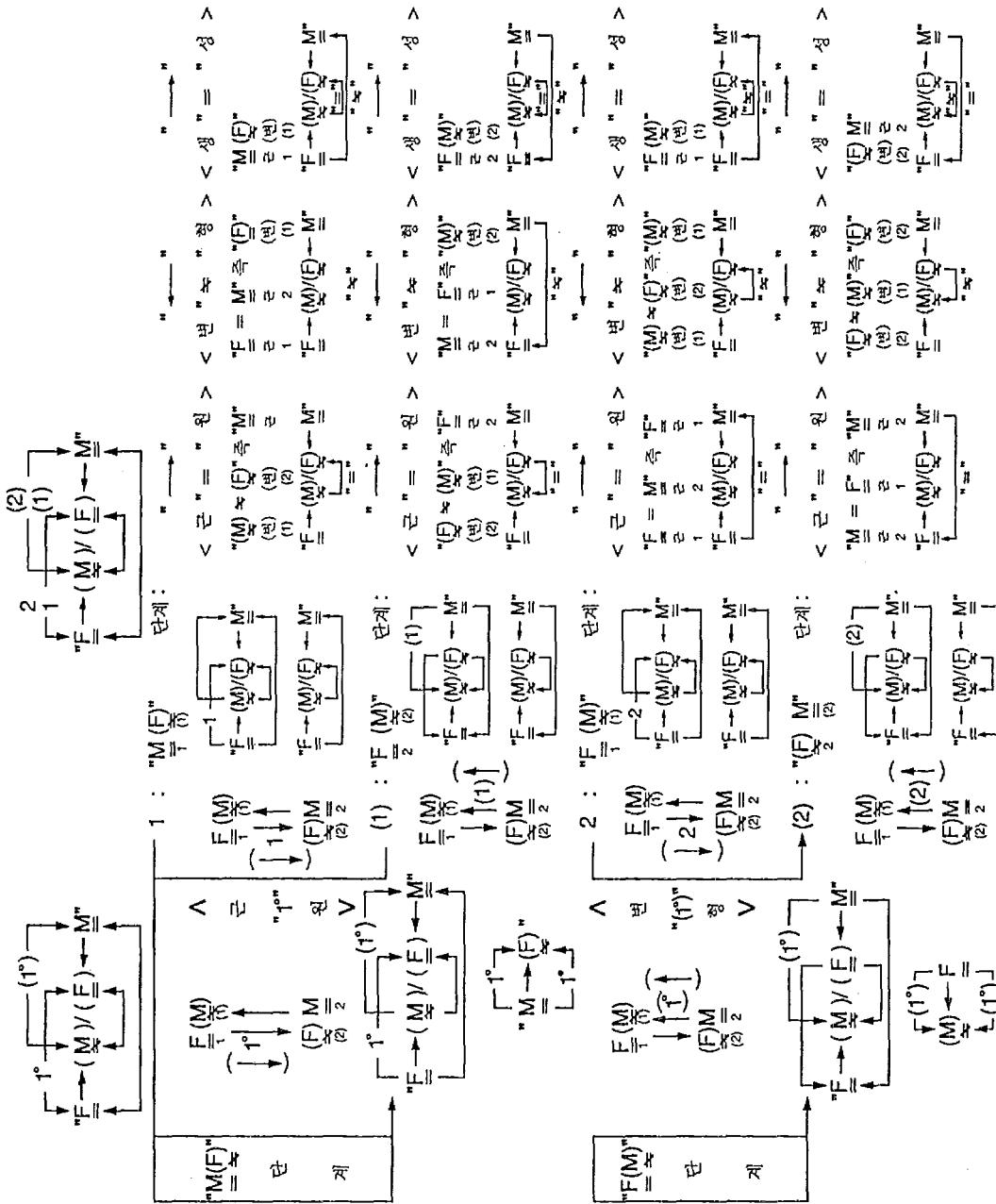
그림 要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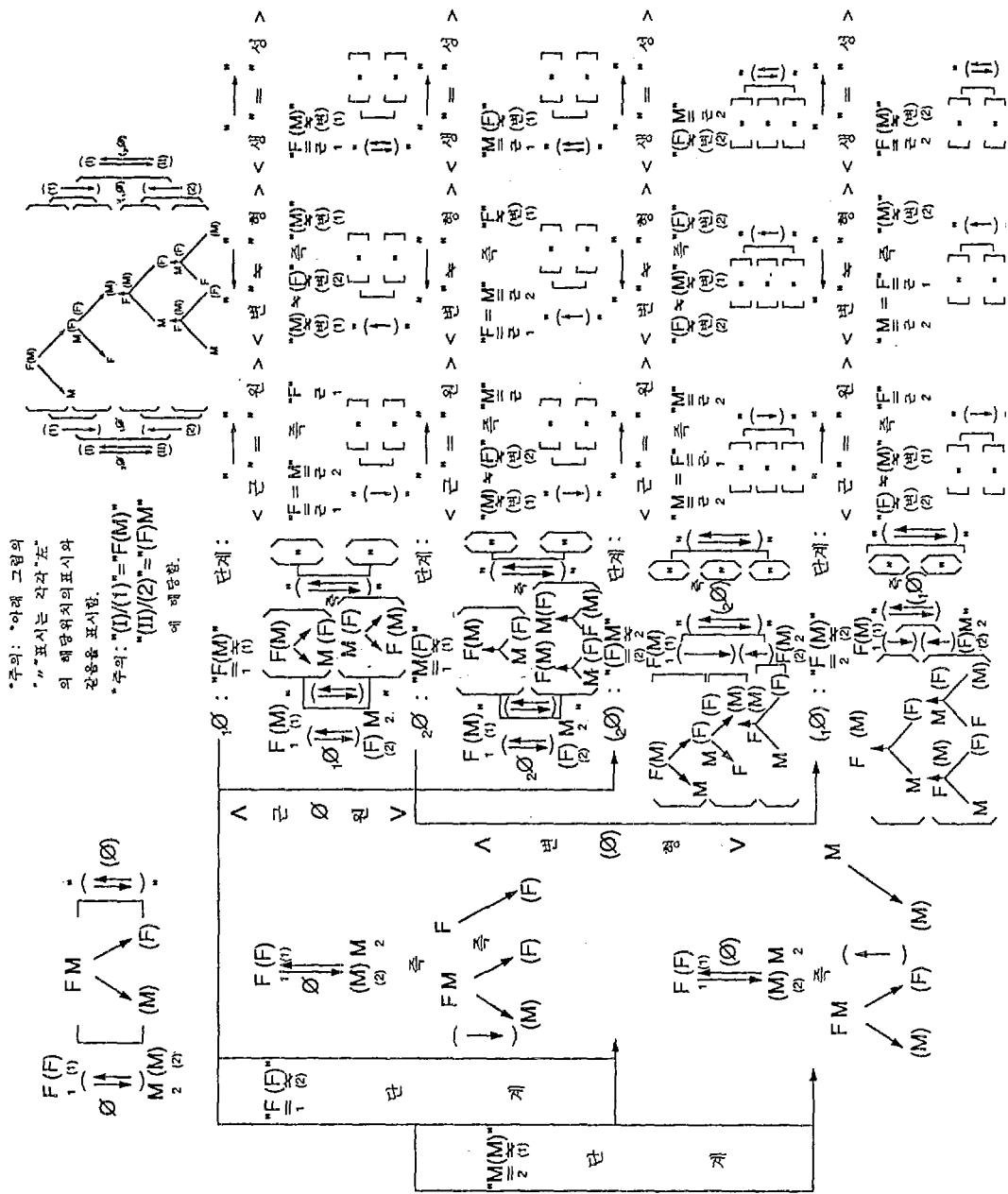
- * 뒤 그림들은 첫째 : (正)對角線 그림/둘째 : (橫적) 對角線그림/셋째 : 나무그림의 순서로 되어 있고 그 각각은 다시 “理論(一般人稱音韻論)/一般形態論(1)/(2)(內部統辭論<1>/<2>)"의 “짝”과 “外部統辭論(1)/(2)"의 “짝”으로 된 “한 쌍의 짝”을 이루고 있음;
- * 이들 세 類型의 그림을 읽는 순서는 “(正)對角線 그림”에 따름 (그 基本原則은 *앞 본문 p.119 이하의, “橫적 對角線 그림”과 같음);
- * 각 그림의 左端의 부분은 각각 그 그림이 표시하는 단계의 ‘理論’에 해당함;
- * 그림 작성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은 *앞 “註 : 1, 3, 4, 5”의 引用論文 참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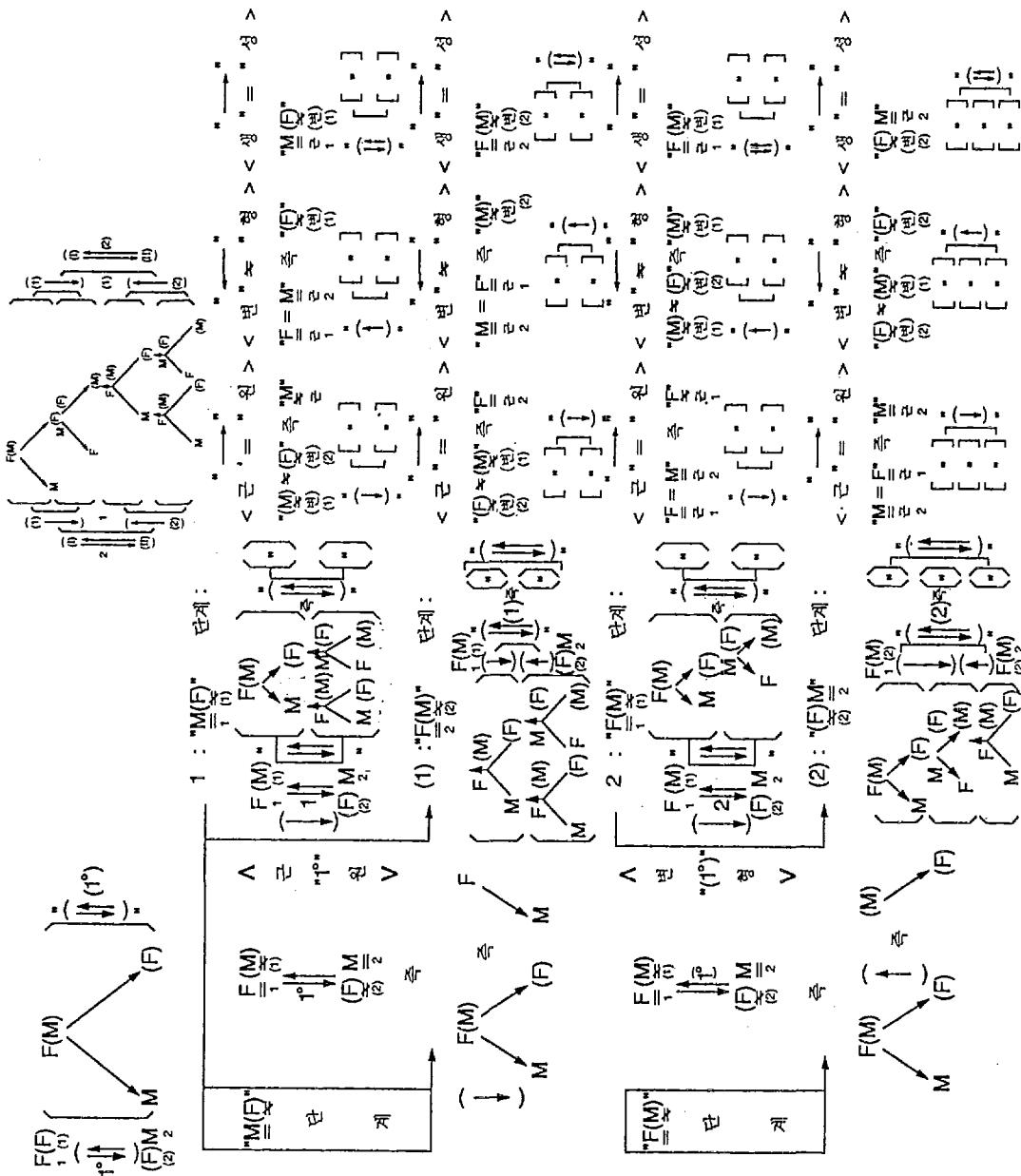












《Résumé》

A Propos du Mécanisme Déictique Énonciatif: l'exemple de l'honorifique/genre et la pré-/postposition

Pak Hyong-Dal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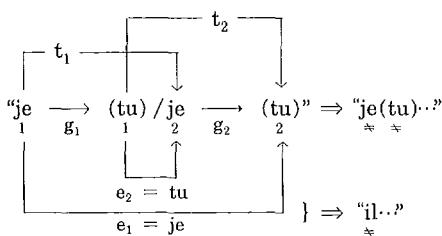
La présente étude comporte un triple objectif lié l'un à l'autre:

1) déterminer la *position* de l'*activité de langage*(ou *circuit de la parole*) non pas comme celle du *mécanisme déictique récurrent* du type *égoцentrique*: "signifiant <je> → signifié<tu>", mais comme celle du *non récurrent* du type Q(uestion)—R(éponse): "tu<St:Q.>—je<Sé:R.>"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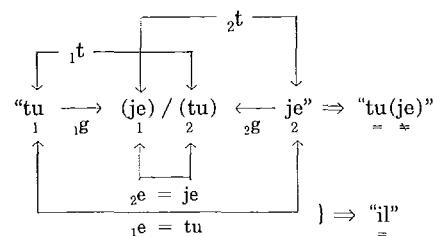
Cette détermination de la position suppose nécessairement deux types de marqueur grammatical, c'est-à-dire le *flexionnel* <général> (type: tu → je) et le *dérivationnel* <particulier> (type: je → tu) ainsi que leur assignation dans les deux domaines opposés, chacun caractérisé par la *non récurrence bi-directionnelle/la récurrence uni-directionnelle* de son pair("tu → je"/"je→tu").

Schématiquement:

"Mécanisme St → Sé Non Cinétique"



"Mécanisme St → Sé Cinétique"



*Observation: "g" = genèse/"t" = transformant ou synaptisant/"e" = transformé ou synaptisé; le chiffre 1/2 mis à côté droit ou gauche de chaque lettre, la flèche(→)/(→←) et l'inégalité/égalité(≠/=) indiquent la distinction *non cinétique/cinétique*.

Le schéma *cinétique* s'oppose à celui de *non cinétique*, du fait que:

- dans le premier cas, on analyse nettement les trois termes: *genèse/synaptisant/synaptisé* dans l'ordre suivant: *d'abord*, le pair "₁tu--₁je", où "₁tu" <flexionnel> *absorbe*, par le procédé de "₁t", le ("₁je") en tant que "₂tu", suivi *ensuite* du

procédé de “_{2t}”, l'inverse et l'externe du “_{1t}” précédent, come l'indique la partie du schéma produisant le “_{2g}”, et enfin, du procédé de “_{1e}” et “_{2e}” produisant le *pair juxtaposé* du “_{1g}” et “_{2g}” qui précède, mais,

- dans le second cas, on ne voit plus de telle analyse(elle n'existe que sur le plan schématique, ce qui reflète la *confusion* de *forme/matière* ou l'*insistance* de la *forme <cinétique>* dans le cadre de la *matière <non cinétique>*), quisqu'elle se fonde toujours sur le “je” *dérivationnel, inanalysable et arbitraire*;

2) réécrire le classement fait dans le cadre dérivationnel <non cinétique>, sous l'étiquette séparée telle que “l'honorifique” <sémantico-dérivationnel> et “le déictique” <morphologico-flexionnel>, de telle façon qu'il soit un fait pertinent à appuyer, même si c'est indirect, le mécanisme cinétique, c'est-à-dire:

- réduire ce *classement* à celui utilisable pour sa reconstitution, de la manière telle que la suivante:

1°)* : “-i～-ka օ|～ㄱ} <cas sujet emphatique>; -il～-lil 을～를<cas objet emphatique>; -to -도 -nĩn -는 -man -만 <particule: aussi, quant à, seul>”, parallèlement à 2°)* : “-Ø <non honorifique>; -si -ㅅ| <honorifique sujet>; -sip -습<honorifique objet>; -ni -니 <honorifique extrême ou inter-sujet>;

- comparer en dépassant ou/et en renversant l'*ordre du pair*: “St <déictique> → Sé <honorifique>” en même temps que l'*ordre du sujet de volonté* ou de *choix* dans le *mécanisme de l'activité de langage*, pour arriver à reconstituer le *système de la personne cinétique/formelle* au détriment de *celui de la personne non cinétique/sémantique*, qui était la *base commune de comparaison*;

- construire une *théorie unifiée* douée de la force capable d'éliminer celle de *non cinétique*;

3) la *théorie unifiée* nous impose la démarcation *continue* telle que: “théorie(phonologie générale <personnelle>) → morphologie générale(1)/(2) → syntaxe interne(1)/(2) → syntaxe externe(1)/(2)” par opposition à celle de *discontinue* telle que: “théorie(phonologie <non personnelle>) → morpho-syntaxe → syntaxe sémantique”, et ce *mécanisme cinétique personnel* pourra jouer, souhaitons-le, le rôle dirigeant dans l'*appréhension de l'activité profonde de langage*.

* Ces *déictiques* postposés au nom/prénom ainsi que l'*honorifique* correspondent, chacun, à 1°): l'*article(un/le)*, l'*auxiliaire(être/avoir)*, la *préposition* (à, de...) et l'*adverbe dans la locution verbale*(type: *très/peu/aussi/grand* comme dans “avoir très, grand, peu, aussi, si faim, froid...”)

et à 2°): le *genre*(*mASCulin/féMINin/neutRE*) en français et en d'autres langues semblables; dans la mesure où l'on traite ce *pair* sous l'étiquette séparée dans l'*ordre* "déictique → honorifique", il ressort du stade du type "je → tu" *non cinétique* en *linquistique traditionnelle*, ou *pseudo-cinétique* en *psychomécanique guillaumienne*; il est donc nécessaire, pour reconstituer le *pair cinétique* du type "tu → je", de *renverser* ou *dépasser* l'*ordre* du premier("je → tu").